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6년 8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

특수학교 미술과 교과교육 운영 실태 조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최 완 희

특수학교 미술과 교과교육 운영 실태 조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Art Education
Curriculum in Special Schools

2016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최 완 희

특수학교 미술과 교과교육 운영 실태 조사

지도교수 김 정 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최 완 희

최완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정 은 희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허 유 성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정 연 인

2016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표목차	iii
ABSTRACT	i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5
1. 특수교육 미술교과	5
1) 특수학교 미술교과의 중요성	5
2) 특수학교 미술교과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8
2. 특수교육 미술과 교과교육	9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9
2) 미술교육 자료	12
3) 미술교육 환경	14
4) 미술교사의 전문성과 배치	15
3. 선행연구 분석	18
III. 연구방법	21
1. 연구설계	21
2. 연구참여자	21
3. 연구도구	22
4. 연구절차	24
5. 자료처리	24

IV. 연구결과	25
1. 특수학교 미술교과 교육에 대한 교사의 변인별 인식	25
2. 특수학교 미술교과 운영실태에 대한 교사의 변인별 인식	34
3. 특수학교 미술교과 학습교재와 기자재 활용 및 환경실태	45
V. 논의	51
VI. 결론 및 제언	59
1. 결론	59
2. 제언	60
참고문헌	62
부록	65

표 목 차

<표Ⅱ-1> 최근 10년간 경기도 국·공립 및 사립 특수교사 임용현황	17
<표Ⅱ-2> 특수학교 미술교과 운영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표	18
<표Ⅲ-1> 연구 참여자의 기초사항	21
<표Ⅲ-2> 설문지 구성 및 내용	23
<표Ⅳ-1> 특수학교 미술교육의 지도목표	25
<표Ⅳ-2> 미술교과 운영의 어려움	27
<표Ⅳ-3> 특수학교 미술교육 연수의 필요성	28
<표Ⅳ-4> 희망하는 미술교육 연수내용	29
<표Ⅳ-5> 학교의 미술교육 지원과 관심의 정도	31
<표Ⅳ-6> 특수학교 미술전공 교사들의 인식	32
<표Ⅳ-7> 미술수업 시 미술전공자의 필요성	35
<표Ⅳ-8> 실제 미술교과 주당 수업 시수	36
<표Ⅳ-9> 미술교과 수업 시수에 대한 인식	38
<표Ⅳ-10> 교사 한 명의 주당 수업시수(미술)	39
<표Ⅳ-11> 미술교과 외 타 교과의 주당 지원 시수	40
<표Ⅳ-12> 미술수업 장소	41
<표Ⅳ-13> 미술교과 담당 시 가장 어려운 점	42
<표Ⅳ-14> 미술교육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점	44
<표Ⅳ-15> 미술수업 시 주 교재	45
<표Ⅳ-16> 특수학교 미술교과서에 대한 만족도	47
<표Ⅳ-17> 미술교재 및 교구의 구비현황	48
<표Ⅳ-18> 학습기자재 및 학습자료의 활용도	49

ABSTRACT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Art Education Curriculum in Special Schools

by Wan-Hee Choi

Advisor : prof. Jeong-youn Kim, Ph.D

Major in Spa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Students express their thoughts and emotions freely using various mediums and materials through art education in school. Through this process, their creativity gets enhanced and feel confidence and satisfaction by achieving something.

However, due to unprepared condition for disabled stu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art classes in special-education school, most of the disabled students are often left alone unattended in art classes. Also, there are instances where it is replaced by a different subject. Effective art education is yet to be accomplished due to these various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repare basic data for better art education to be conducted in special-education schools by investigating how effectively the art subject is being operated and how effectively it is being applied in classes in special-education school.

The research problem of this study is ‘how effectively the art subject is being operated in special-education school?’(focusing on operation and professionalism of art teachers) The research object is special-education

teachers from 32 special schools in Gyeonggi-do, and used questionnaire as a research tool. The data was processed through statistics processing using SPSSWIN 21.0 Program.

Art education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to disabled students. This signifies that art education promotes physical · emotional · cognitive development through various art activities, and improves self-expression, creativity, happiness, and confidence. Specially, students with language developmental impairment can express their emotions through various art education other than language and can resolve emotional conflicts and difficulties that can occur due to disability to some degree through art.

Also, art education has an advantage that disabled students can gain confidence by expressing in nonverbal ways, and makes positive effect on special students as gaining positive feeling about themselves by experiencing various materials and activitie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of ‘how effectively the art subject is being operated in special-education school?’(focusing on operation and professionalism of art teachers), it was identified that art subject is often operated by general teachers not art major teachers. Hours that art major teachers undertake different subject was 12 hours a week, and many teachers replied that there is not enough time to study teaching materials due to responsibility for other subjects in an investigation of art major teachers. In other words, this study drew a conclusion that special schools are progressing classes distant from professionalism of art subject in operation and professionalism of art teachers aspect.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that special-education schools need to assign art subject to teachers who majored in art education, art teachers need to develop their ability as an art teacher through training to improve professionalism in art, and education office needs to appoint teachers in special-education school by indication subject(especially arts and physical

education subject) like regular school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문화의 일원론이나 생활양식의 동일성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원적이며 다양한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시대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다원주의 문화논리는 모든 분야를 중심과 주변으로 차별하는 이분법적인 시각이 아니라, 개별과 개별이 다 의미가 있는 양가적인 시각을 보편화하였다.

이러한 변모 속에서 미술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미술교육은 이제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세계에 대한 비평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교육으로 발전하였다(양경희, 2008). 이에 따라 특수교육에서의 미술교육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미술교육의 수준은 시대의 발전과 변화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을 주곤한다.

인간에게 있어 예술교육은 정서교육의 요체이며 정신을 순화시켜 삭막한 현실을 따뜻한 인간미나 미감을 동반하여 우의적이고 상징적으로 변용시켜준다. 그리하여 인간사회를 보다 원만하고 풍요롭게 하여 비인간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김삼량, 1992). 미술교육의 중요성은 지금까지 많은 교육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 교육철학자 해리 브라우디는 ‘미술과목은 과학, 국어, 수학처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필수 교과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하며, 미술은 과학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각을 제공한다.’고 했다. 또한 교육학자 넬슨 굿맨도 ‘미술교육은 전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이고 통합적인 요소이다.’ 라고 말했다. 미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김성숙(2007)은 미술수업을 통해 학생이 제작한 미술작품은 ‘인간의 몸과 정신의 총체’이며 ‘조화적인 산물’이라고 했다. 따라서 특수학생들은 미술교육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게 되며,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와 재료를 사용한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창의성이 증진

되고 무엇인가를 성취해 봄으로써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미술교육은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작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고 미술문화를 즐기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해준다(한국미술문화연구회, 2007).

미술교육의 중요성은 장애학생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장애학생들에게 미술활동은 자신의 생각과 내면을 어려운 언어나 논리적인 계산 없이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특수교육 미술과 2015 교육과정에서 미술교과의 목표를 보면,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자신과 주변 환경을 감각적으로 인식하여 소통하고,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미술작품의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삶 속에서 미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기른다.

- (1) 다양한 감각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지각하고 생활 속에 미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2) 다양한 미술문화의 체험을 통해 자신과 주변 세계의 미적 가치를 인식하고 시각 언어로 소통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3) 미술 활동을 통하여 느낌이나 생각을 창의적·융합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미술교육은 장애학생의 많은 교육적 목표들을 통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교육활동이다. 장애학생은 언어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기 어렵고, 교과 중심의 학습에서 성공해 본 경험도 적다 그러나 미술교육을 통해 다양한 재료와 표현방법을 익히고 사용하는, 자유로운 활동을 체험한다면 인지적, 신체적, 사회-정서적으로 다양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학생에게 이렇게 중요한 미술교육이 교육현장에서는 아직도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 강혜경(2015)등의 연구에 의하면 미술수업에 장애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장애학생들은 미술수업시간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주요 교과에 밀려서 항상 비슷한 활동만 반복하거나, 다른 교과로 대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옆에서 모두 해주는 수동적인 참여자가 되어 버리는 등 교육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효과적인 미술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특수학교 미술교육 운영 실태 보고에 따르면 미술을 전공한 교사가 미술수업을 담당하는 사례가 부족하고, 미술전담 교사들의 자질 부족으로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미술실 및 각종 기자재의 부족과 각종 지원의 미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구미선, 1997 ; 이미경, 2003).

이에 본 논문은 특수학교 교과운영 실태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정인지체 특수학교 미술교과 운영실태(류난희, 2015), 특수학교 미술교육 환경개선에 관한 연구(한문주, 2011), 중등특수 미술교육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조민영, 2010), 정인지체 특수학교의 미술교육 실태조사(권용석, 2006), 정인지체 특수학교 미술교과 운영실태 조사(이지운, 2006), 정인지체 특수학교 미술교과교육 운영실태(김유리, 2005), 특수학교 미술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미경, 2003), 정인지체 학교의 미술교육실태 및 개선방향(금경보, 2001) 등의 논문과 차이를 두고 있다. 선행 논문들은 특수학교 환경실태와 개선방안과 교수방법이나 기자재의 활용실태 조사, 학습자료와 교과교재 등을 주로 다룬 반면, 본 논문은 특수학교 미술교과 운영 실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교사변인들 즉, 성별, 교직경력, 전공여부, 설립구분, 소속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변인들 간의 차이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에서 미술교과교육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특수학교 교사들의 미술교과교육에 대한 인식수준, 미술전공 유무와 그 효용성, 미술교과 운영실태 및 미술교사 운영실태 그리고 학습교재와 기자재 및 환경실태를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특수학교에서 보다 나은 미술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 미술과 교과교육 운영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특수학교 미술교과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 1) 특수학교 미술교과 교육에 대한 인식은 교사 변인(성별, 교직경력, 미술전공 여부, 설립구분, 소속)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특수학교에서 미술교과를 담당하는 미술전공자들의 전공이수 경위와 효용성은 어떠한가?

둘째, 특수학교 미술교과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특수학교 미술교과에서 사용하는 학습교재와 기자재 활용 및 환경실태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미술전공 교사

이 용어는 본 논문에서 학부나 대학원에서 미술과를 전공했거나 중등미술교육을 전공한 특수교사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2) 전공이수의 효용성

이 용어는 본 논문에서 학부나 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한 미술교육 전공교사가 특수교육 미술수업에서 미술교육 전공이수가 얼마나 ‘활용성이 있는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특수교육 미술교과

1) 특수학교 미술교과의 중요성

장애학생에게 미술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신체적·정서적·인지적 발달을 도모하고, 자기표현, 창의력 및 행복감과 자신감을 증진시킨다. 특수교육 미술수업에서 물감이나 찰흙과 같은 재료는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돕는다. 미술재료는 학교교육과정에서 독특하게 직접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감각적이고 구체적이다. 감각이나 근육운동에 장애를 가진 학습자들을 위하여 미술제작 활동의 기회를 줌으로써 모든 감각이 상호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전맹인 시각장애학생도 찰흙으로 대상의 표현이 가능하고 청각 장애학생은 물감으로 색을 혼합하는 것을 시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즉시 그 과정을 재현하여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전성수·박수자·김정선, 2006). 미술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부정적이고 고통스럽고 공포스런 감정을 환자와 관련지어 생각함으로써, 면역체계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생리학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술활동이 장애학생에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그리는 막대 모양 조차도 학생이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며 학생 개인의 감정과 정서, 특히 신체에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이미지화하여 해소해 낼 수 있게 한다(노부자 등, 2005).

이렇게 장애학생들은 미술교육을 통해 정서적 문제가 노출되기도 하고, 정서적 순화의 과정을 거쳐 치료적 효과를 보기도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애학생들은 별도의 미술치료보다는 미술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히 미술부분에서 필요한 중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장애학생에게 있어 미술교육의 중요성은 일반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능한 같은 나이 또래의 일반학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미술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지적·정서적·신체적 교육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일반 과목의 수업보다 주의집중력이나

언어능력이 부족해도 잘할 수 있는 교과인 미술교육활동을 잘 계획하고 실행하면 일반학생들보다 훨씬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

미술교육의 중요성은 첫째, 미술표현의 발달을 가져온다. 장애학생들은 정상 발달 패턴을 가지고 발달의 속도가 느리지만 개별학생의 개인차, 관심의 정도, 과제 지속성과 즐거움이 각각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자극을 통해 그려보고, 만져보고, 표현해보고, 느껴보게 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환경, 내적인 감정과 느낌을 작품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촉진하는 좋은 매개체의 역할을 해준다(강혜경 등, 2015).

둘째, 신체적 발달을 촉진한다. 미술 활동은 다양한 미술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색연필 쥐기, 찰흙 주무르기 등과 같이 미술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은 대부분 장애학생에게 부족한 조작능력과 소근육 운동능력, 눈과 손의 협응력을 증진시키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미술교육 활동은 장애학생에게 자연스러운 교수활동 내에서 신체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윤점룡, 2005).

셋째, 정서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준다. 미술활동은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만족감과 자신감을 갖게 한다. 장애학생은 자신의 즐거움, 자신감, 두려움, 좌절감, 분노 등의 감정을 미술을 통해서 건설적으로 표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해 나갈 수 있고, 긴장이 완화되고, 타인의 의견이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이미옥, 2014). 발달이 지체되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학생은 잦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많은 통제를 받게 되어 위축되거나 불안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미술 작업과정과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작품제작은 장애학생이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이근매·조용태, 2014).

넷째,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발달을 촉진한다. 미술교육활동은 언어능력이 부족한 장애학생에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며,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해 봄으로써 언어표현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를 통해 학생은 다양한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사고를 반영할 수 있으며 학생이 자신이 그린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의사소통의 동기를 높여줄 수 있다(김말숙, 2007).

다섯째, 인지발달을 도와준다. 장애학생을 위한 미술수업은 다른교과의 내용과

연계하는 통합교과적 수업도 많이 이루어진다. 장애학생은 한 가지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서 많은 반복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일반학생보다 일반화 능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이는 다른 교과에서 배운 인지적 내용들을 미술교육 활동에 접목하여 교수하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교육 고유의 탐구적 태도, 논리적 사고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배양과 같은 인지 발달적 측면과 통합수업으로 인한 인지발달적 측면이 장애학생 미술교육의 중요성 중에 하나라고 하겠다(양경희, 1998). 미술활동을 하면서 학생은 모양, 크기, 형태의 특징, 색의 개념 등의 조형요소와 위, 아래, 옆 등과 같은 공간개념, 그리고 부분과 전체의 관계인 비례나 강조, 동세 등의 조형의 원리,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증진된다. 또한 수 세기, 일대일 대응하기, 기초 어휘 개념 익히기 등의 인지 과제에 그림자료를 활용한 교수자료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양경희, 2008).

여섯째,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 장애학생은 일반 학생보다 사회성 부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교과중심의 다른 학습시간에는 사회성 기술을 교수할 기회가 비교적 적다. 그러나 미술교육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회성기술을 배울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재료를 친구들과 나누어 쓰고, 공동작업을 하며 규칙을 지키는 일 등의 경험을 통하여 타인과의 사회적 경험을 하고 친구들의 작품 감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데 이러한 능력은 장애학생의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술교육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회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갈등 상황도 잘 이겨내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손경숙·이현수, 2011).

일곱째, 창의성을 발달시킨다. 미술교육의 장점이라면 창의성 계발을 가장 먼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의 4요인으로 설명되기도 하는 창의성은 사고하는 힘을 의미하며, 주어진 내용을 다시 한 번 다르게 생각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깨닫게 하는 능력으로 감수성, 이해력, 통찰력, 통합능력 등을 키울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창의력은 장애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송현정, 2006). 또한 로웬 펠드(Lowenfeld)는 미술을 통한 인간교육을 강조한 교육학자로서 미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술에 의해 창의성을 계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지능력이 부족한 장애학생들은 창의성 계발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장애학생에게도 창의성개발은 일반학생과 똑같이 중요한 미술교육적 의미가 있다. 장애학생에게 있어 창의성이라 함은 작품제작의 과정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기정(1997)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술은 창의적 상상력을 즐겁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 특수학교 미술교과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미술교과는 특히 다른 교과에 비해 유용성이 높다. 국어나 수학 등의 교과에 비해 인지적 격차가 적기 때문에 탐색하고 경험한 것을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재료와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미술수업은 특수학생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들을 미친다(김춘일·윤정방, 2007).

지적장애학생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학습된 무기력이다. 이들의 경우 일반아동에 비해 실패의 경험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성공경험이 적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 미술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 인지적 요구가 덜하여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덜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의 경험을 주기에 좋은 과목이다. 또한 미술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므로 미술 작품의 제작과정 자체로 만족감과 성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학생으로 하여금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을 기르게 할 수 있다(노부자 등, 2005).

지체장애학생의 경우 미술교육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면, 미술교육은 이들에게 미술교과 고유의 교육목적 외에 적절한 훈련과 치료적 접근을 통해 운동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미술활동은 일상생활 기술 등 상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직업치료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접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치료활동과 미술교과의 접목은 조기에 전문치료사에 의해 집중적인 훈련을 받는 것 못지않게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개별화된 특성에 적합한 미술활동을 통해 미술교과의 목표를 도달함과 동시에 바른자세를 습관화하고 소근육 운동 및 신체 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다(이근매·조용태, 2014).

장애학생에게 있어 미술은 심상을 표현하게 하며 인간은 심상으로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심상이 장애학생의 성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언어는 일차원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취하지만 미술표현은 본질적으로 공간적인 것으로서 공간속에서 연관성들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가깝고 먼 것, 결합과 분리, 유사점과 차이점, 가족의 생활환경 등을 표현하게 되므로 개인과 집단을 이해하기 쉽다. 이로써 장애학생들은 미술교육을 통해 공간성에 대해서 알게 된다. 또한 미술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하며 이러한 욕구해소를 통해 장애 학생들은 그들의 정서적 긴장이나 문제행동의 빈도 또는 불만 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술활동이 정서 및 행동장애나 자폐적 문제를 지닌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김말숙, 2007).

장애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 및 행동장애 학생과 자폐성 장애학생들은 비언어 매체인 미술수업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통로를 갖게 된다. 또한 다양한 미술매체와 기법은 학생의 인지, 감각기관과 정서적 무반응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치료적 효과가 있다. 특히 미술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는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자기결정과 문제해결의 경험을 제공해서 사회적 관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들이 나타내는 문제를 경감해주며, 제한된 세계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보다 확대된 시각을 열어 줄 수 있다(강혜경 등, 2015년).

2. 특수교육 미술과 교과교육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교육과정과 관련한 가장 포괄적인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다. 헌법 제31조 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즉, 장애를 이유로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

의 기본 정신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곧 특수교육의 성패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합하게 제공할 것인가와, 관련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전병운·유재연, 2008).

특수교육에 적용되는 2015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성격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이다.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며 학교교육의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또한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명을 보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 또는 기본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공통교육과정은 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편성·운영되며 기본 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초등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편성·운영한다.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특성 및 정도에 따른 요구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기본 교육과정과 병행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하였다. 공통교육과정의 교과는 교과군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는 4개의 교과영역으로 구분하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했다.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보통교과에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여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은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따르며 교과의 내용을 대신하여 생활기능 및 진로와 직업교육, 현장실습 등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고 그 영역과 내용은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반영하여 학교가 정할 수 있

게 하였다. 기본교육과정 편제를 보면, 중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되며 교과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음악/미술), 선택으로 구성된다.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기본교육과정 미술과의 성격을 보면 첫째, 미술과는 내면의 사고, 감정, 상상 등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출하게 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둘째, 다양한 미적 자극에 대한 탐구과정에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력을 증진하고 자기결정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킨다. 셋째, 개개인이 전생애에 걸쳐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며 문화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길러준다. 넷째, 참여자체가 의미있는 활동이며 궁극적으로 미래의 직업 및 독립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미술교과의 목표는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자신과 주변 환경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소통하여,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미술작품의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삶 속에서 미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기른다. 이며 다시 학교급별로 각각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기본교육과정 미술교과의 내용체계는 영역별로 체험, 표현, 감상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요소는 학교급별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생활중심의 경험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로 유기적인 연계성이 있도록 구성되었다.

교과는 기본적으로 지식에 대한 교육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제시된 교과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학생에 대한 지적인 수준에 알맞게 교과가 다시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과의 시간배당은 일제수업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실제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적어 교과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수업의 방법으로는 교사가 최대한 열심히 교과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사의 역량이 개개의 장애학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에 각각의 학생이 개별적으로 교과교육을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특수교사의 수를 각 학생에 대한 개별적인 교과교육의 시간이 확보될 수 있을 만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전병운·유재연, 2008).

미술교육은 되는 대로 노력하는 식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술수업은 실습 위주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실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학습이 되어야 한다. 수업에

서는 학생들이 자기 작품을 제작할 뿐만 아니라 미술작품에 대해 토론하고 감상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국어수업과 연계하여 미술에 관한 글을 읽고 쓰기도 하며 미술에 관한 문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학생들은 수업 중에 자신이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나 의견, 판단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특수학생의 미술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미술활동의 범위가 넓어야 한다. 감각적이고 인지적이며 조작적인 미술활동뿐만 아니라 시각적 지각, 미술작품에 대한 토론, 문화와 역사에 관한 내용, 미술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탐구 등을 포함해야 균형 잡힌 미술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교육에서의 이러한 적절하고 다양한 학습활동은 장애학생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특수학생들의 미술활동에 대해 수전 랭거(Susanne Langer)는 ‘미술은 인간 감정의 객관화이다. 음성 언어는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삶의 느낌을 표현하기에 부적절하다. 이러한 감정들은 미술을 통해서만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다.’고 했다(전성수·박수자·김정선, 2006). 그러므로 이렇게 적절한 미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되고 새로운 창조적 자세와 그들 삶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며 성숙한 태도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2) 미술교육 자료

특수교육을 위한 교구교재는 일반교재를 장애학생의 특성에 맞게 활용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으며 학급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교수매체는 어떤 학생에게는 득이 되지만, 다른 학생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장애학생들에게는 많은 매체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매체가 필요하다는 주장(김성남·고등영·김영철, 2006)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하겠다. 언어이해나 표현에 어려움을 보이는 장애학생들에게는 ICT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을 위하여 사용되는 ICT 활용자료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학습내용의 이해 면에서 언어적 부담이 적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할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장애학생의 문자이해를 돕는데 효과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장애학생이 겪는 지나친 실패는 자칫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기

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마저도 발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학생들이 사용할 학습매체는 실패경험이 적은 학습 매체이어야 한다(전병운·유재연, 2008). 김정분(2000)이 조사한 특수학급 교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교사들은 하루 평균 30분~1시간씩 교재연구를 하고 있으며, 교재 연구 시에는 주로 특수학교용 교과서와 참고서, 초등 교과서 및 참고서를 많이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경우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교수-학습 자료로는 교과지도를 할 때 주로 학습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동영상 을 결들인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게임이나 놀이 형식으로 제작된 학습 관련 자료의 선택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또한 학습자료의 부족 및 시설의 미확충이 교과지도 시의 애로점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미술과 수업은 학생의 인지, 정서, 운동능력 등 손상된 부분의 발달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을 도모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미술활동은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해야 한다. 장애로 인해 생활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좌절감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하고 발달을 더욱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현재의 발달수준을 정확히 평가하여 그 단계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재료와 주제를 제공함으로써 실패로 인한 좌절을 방지하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강혜경 등, 2015). 또한 미술활동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관심을 두어 개인의 독특한 개성의 발현을 평가하여 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미술교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발달과 성장은 매우 다양하며, 특히 특수학생에게 미술적인 방법이 동원된 교육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의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돕고, 학생에게 창의적인 경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새롭게 만들거나 생각해 보는 즐거움,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만족감을 맛보도록 하여 그들의 발달을 돕는다. 따라서 미술수업은 그들에게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음을 알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가치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교재와 수업내용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3) 미술교육 환경

미술교육에서 교육환경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잘 짜여진 미술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넓은 교실, 재료, 교구, 개수대시설 등 그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골고루 구비된 미술적 교육환경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특수학교의 환경은 장애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과 활동에 자극을 주고 그것을 조장해 줄 수 있도록 장애 특성과 연령, 발달단계, 흥미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욕구에 적합하도록 기획해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들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의 장이 되도록 하면서도 높은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장애학생에게 언어발달, 종합학습의 장, 놀이의 장, 이야기의 장이 되도록 하고, 화단이나 화분 등을 이용한 관찰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관찰 및 조사 기록 활동이 가능한 자유롭고 변화가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하며 기본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윤점룡 등, 2005).

특수학교의 교실은 장애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배치해야 하며, 교실크기는 일반학급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또한 활동중심의 학습을 하는 시간이 일반학생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장애학생들에게 쾌적하고 넓은 공간이 확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반쪽짜리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특수학급에는 기본적인 기자재 외에 치료 공간, 자료의 보관 공간 등 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공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급보다 작은 면적의 공간만 간신히 확보한 경우도 있다. 특수학급의 위치 또한 학교에서 가장 외지거나 아예 본 건물과 동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도 많다. 전국 특수학급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질문한 결과 80%이상의 교사들이 특수학급의 물리적 환경에 불만족을 표시하였다(최세진·유장순·김주영, 2005).

특히 미술교과는 다른 교과와는 달리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재료와 용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크기가 다소 큰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작업대와 물을 사용하는 편리한 개수대가 활동 공간 내에 설치되어 자유로운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손경숙·이현수, 2011). 교실내부에는 다양한 유형의 삽화가 있는 책을 제공하는 것이 좋으며 거미줄을 관찰하거나 야생화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실내 환경을 장애학생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 장애학생들은 실외미술활동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젤, 간이의자, 화판, 그리기 재료와 도구 등을 구비하여 학생들이 야외수업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김미선, 2011). 미술수업에서 학생들은 소근육을 주로 사용하는 표현 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소근육 운동기술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헤드 포인터나 마우스 스틱에 탈 부착할 수 있는 펜이나 연필, 붓 등과 같은 적응장치가 구비된다면 장애학생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또한 그림 그리는 것과 같은 개방식 과제는 단일 스위치 스캐닝 장치를 준비해주는 것도 장애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박숙자 등, 2012). 이외에 교육현장에서는 그림판, 디지털 카메라, 하드웨어 기기, 공학기기(OHP기기, 슬라이드)들을 미술매체와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4) 미술교사의 전문성과 배치

미술교과는 효과적인 지식 및 기술전달식 수업방법 중심의 일반 학문적 교과와는 달리 인간 내면에 담겨 있는 정서, 개성, 직관, 창조성 등 상상의 세계, 감정의 세계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술교사는 개개의 인간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술교사가 먼저 인간적이어야 하며 인간적인 교사는 학생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지각하는지 각 학생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이성도·임정기·김황기, 2013). 따라서 미술수업에 앞서 교사는 학생을 확일적으로 묶고 한 가지 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며, 자신이 이해하는 미술적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박라미, 2005). 그렇게 될 때 학생들은 이에 자극되고, 따라서 어떤 재료들은 장애학생들에게 매끄럽다, 이채롭다, 차갑다, 부드럽다, 각지다, 아름답다 등의 특질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고, 어떤 재료의 느낌은 장애학생의 손에 닿는 순간 살랑살랑, 덜컹덜컹, 바스락 등의 소리를 학생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것이다(김재웅, 2011).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교육의 행위에서 교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실제적인 행위가 교사를 통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고 우수한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자질이 부족하다면 그 교육과정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류동훈, 2004). 그 만큼 교사의 재량이나 자질 그리고 책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교사는 그 집단을 대표하는 중요한 존재이며 학생과 더불어 학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사가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일찍이 피아제(Piaget)는 교원이 의사처럼 전문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의사처럼 학생을 진단하지 못하는데 있으므로 양성과정을 통해 심리학과 교과교육학에 전문성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았다(곽병선 등, 1991).

교사교육과정이 장차 교직에 나가 “가르치는 일”에 종사할 사람을 기르고자 하는 교육의 과정이라면 그 전공과정은 “가르치는 일”과 직결되어야 한다. 가르친다는 일에는 언제나 “왜,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물음이 결부되기 마련이며, 이러한 물음은 결코 따로 분리되어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가르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교사에게는 왜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즉, 교과교육이 핵심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당연히 교사의 전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각 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전달하는 구체적인 교수방법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갖추는 것은 교사의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전병운 · 유재연, 2008).

특수교육에서 교사배치를 보면,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배치 기준은 학부나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나, 아직도 특수교육 연수만을 이수한 교사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수학급에서는 주로 국어와 수학 등 특정 교과만을 특수교사가 지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특수학생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술교과는 미술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맡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이미경, 2003 ; 권용석, 2006).

류난희(2014)의 특수학교 미술교과 운영실태 조사를 보면, 특수학교에서 미술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185명 중 미술을 전공한 교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지윤(2006)과 권용석(2006)의 특수학교 미술교과 실태조사를 보

면, 이지윤의 조사에서 특수학교 미술 담당교사 중 62% 정도가 미술 비전공자였고, 권용석의 조사에서는 특수학교 미술담당 교사 중 75% 정도가 미술 비전공교사로 나타났다. 김유리(2006)의 특수학교 미술교과교육 운영 실태연구를 보면, 조사대상인 특수학교 미술담당교사 264명 중에서 미술전공 교사는 46명이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술전공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조사대상 학교들 중에 25%였고, 1명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조사대상 학교들 중 28.8%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마다 선발되는 특수교사 임용현황을 조사하여 그 안에서 미술교과의 전공자 임용실태를 알아보았다. 아래 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로써 최근 10년 간 해마다 경기도내 국·공립 및 사립 특수교사(중등특수, 초등특수)로 임용된 인원과 각 교과별 전공자를 선발한 내용이다.

<표 II-1> 최근 10년간 경기도 국·공립 및 사립 특수교사 임용현황

학교/년도	국·공립중등특수	사립중등특수	공립초등특수	사립초등특수	년간 합계
2007	79		81		160
2008	64		46		110
2009	15		15		30
2010	67		53		120
2011	45		22		67
2012	13		7		20
2013	116		35		151
2014	89	4 (특수3, 중등특수체육1)	44		137
2015	73	8	38	1	120
2016	97	4	58	2	161
합계 (10년)	658	16	399	3	

자료출처: 경기도 교육청 교원정책과 (정보공개 청구 2016)

최근 10년 간 경기도 특수학교 특수교사 임용현황 <표 II-1>을 보면 2014년 사립 중등특수 체육과목만 유일하게 전공자를 선발하고 나머지는 모두 과목별로

뽑지 않고 교과와 상관없이 필요한 특수교사 수 만큼 선발했다. 이러한 특수학교의 교사임용 현실은 전공자가 꼭 필요한 과목의 경우, 그 교과가 전달하고자 하는 학습목표나 효과가 정확히 전달되기보다 그저 그런 식상한 수업이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전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위한 사전 전화인터뷰에서도 특수학교 교사들은 대부분 특수학교에서는 교사의 전공과는 무관하게 미술과목을 맡게 된다고 답했다.

미술교육에서 미술수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술교사의 능동적인 인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를 위한 미술교사의 자질은 교사교육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특수교육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는 정확히 인지해야한다(김정 등, 2002).

3. 선행연구 분석

1) 특수학교 미술과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관련연구

특수학교 미술과 운영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논문들을 그 내용별로 분석하여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2> 특수학교 미술교과 운영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표

저자 (년도)	대상	연구내용
류난희 (2014)	정신지체 특수학교	정신지체 특수학교 미술교과 운영실태
이지윤 (2006)		정신지체 특수학교 미술교과 운영 실태조사
권용석 (2006)		정신지체 특수학교의 미술교육 실태조사
김유리 (2005)		정신지체 특수학교 미술교과 운영 실태
금경보 (2001)		정신지체학교의 미술교육 실태 및 개선방향

<표 II-2>의 계속

저자 (년도)	대상	연구내용
한문주 (2011)	특수학교	특수학교 미술교육 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이미경 (2003)		특수학교 미술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민영 (2010)	중등특수	중등 특수 미술교육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먼저 특수학교 미술교과 운영실태 조사에 대한 연구로는 류난희(2014), 이지윤(2006), 김유리(2005) 등의 연구가 있으며 연구결과 내용을 보면 미술담당 교사들은 미술교과서에 대체로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교사용 미술지도서 역시 활용은 하지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미술수업을 위해서 학생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미술지도방법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고 미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인식수준은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나 교육연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교과 운영의 전반적인 실태조사에서 미술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수업시수의 부족, 장애정도에 맞는 체계화 된 교재와 연구 등의 미비, 미술교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결여가 조사되었다.

학습교재 및 기자재 활용실태조사에서도 학습교재 및 기자재 활용도는 낮았으며 구비된 기자재나 보조자료가 부족하고 그 작동도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미술실마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았고 개수대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물리적 환경실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배치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학교에 1명의 미술교사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수업은 일반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수학교 미술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로는 한문주(2011), 이미경(2003), 권용석(2006), 금경보(2001), 조민영(2010) 등이 있으며 그 연구결과를 보면, 미술실 시설 및 교구설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17개 국·공립학교 중 10개의 학교만이 미술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적인 미술교육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수학교 설치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본교육과

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적인 미술실의 교구 설비기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타났다. 미술교육 환경의 효과적인 개선방향으로는 미술실 확보가 시급하다고 나타났다. 또한 연구조사에서 교사들은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이 실제 수업지도에 도움이 되지 않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연구들에서 미술교과를 미술전공교사가 담당하는 사례가 과반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90% 이상이 미술전담교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용석(2006)은 연구에서 특수학교 미술수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과정을 개선하여 일반미술교육과 특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전담교사를 양성·배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미술실이 없거나 좁고 자료의 부족, 지도서의 부실, 보조교사와 전담교사 부족, 미술교사의 학교행사 참여 등으로 미술수업이 어렵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특수학교 미술교육의 효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교사들의 실기연수 및 치료차원의 다양한 연수, 재료의 다양성과 학생수준별 프로그램의 강화, 보조교사 및 전담교사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미술실 등 학교나 국가 차원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과 특수교육에서의 미술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특수학교 미술과 교과교육 운영 실태, 즉 특수학교에서 미술교과 교육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내 32개 국·공립 및 사립특수학교의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과와 교원정책과를 통해 경기도내 특수학교 교사현황과 경기도 특수교사 임용에 관한 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경기도내 32개교 특수학교의 특수교사이며, 1차로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설문지 배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25개 학교가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25개 학교에서 특수교사, 미술수업을 하거나 중등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총 350명(350부)이 선정되었고 우편을 통해 선정된 각 학교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후 총 260부(74%)가 회수되어 실제 연구자료로 조사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자세한 기초사항은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 참여자의 기초사항

		빈도	%
성별	남	100	38.5
	여	160	61.5
교직경력	10년 미만	149	57.3
	10년 이상	111	42.7
미술전공여부	비전공(초등)	225	86.5
	비전공(중등)	16	6.2
	전공	19	7.3

<표 III-1>의 계속

		빈도	%
설립구분	국공립	81	31.2
	사립	179	68.8
소속	초등	51	19.6
	중등	209	80.4
	합계	260	100.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남자 38.5%, 여자 61.5%로 나타났다. 교직경력에 10년 미만 57.3%, 10년 이상 42.7%로 나타났으며 미술전공여부의 경우에 초등교사 86.5%, 미술전공 7.3%, 중등교사 6.2%로 조사되었다. 설립구분의 경우에 사립 68.8%, 국공립 31.2%로 나타났고, 소속은 중등 80.4%, 초등 19.6%로 나타났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를 위해 경기도내 특수학교 미술과 교과교육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김유리(2005), 권용석(2006), 금경보(2001), 류난희(2014), 이미경(2003), 이지윤(2006), 조민영(2006)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으며 그 중 가장 최근 논문인 류난희(2014)와 조민영(2006)의 문항내용을 주로 참고하였다. 설문문항은 특수학교 미술교사 2명과 논의를 거쳐 수정한 후 특수교육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종 완성하였다. 내용구성은 기초조사, 교사의 인식, 미술전공 여부, 미술교과 운영실태, 학습교재와 기자재활용 및 환경실태로 총 5가지 영역이며, 문항구성은 총 30문항이다. 구체적인 설문지 구성과 내용은 다음<표 III-2>과 같다.

<표 III-2> 설문지 구성 및 내용

구분	설문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기초조사	성별, 교직경력, 미술전공여부와 설립구분 및 소속	1~5	5
교사의 인식	특수학교 미술교육의 지도목표, 미술담당의 어려운 점 및 미술교육연수의 필요성, 연수의 내용과 학교의 미술교육 지원 정도	1~5	5
미술전공 여부	미술전공 이수기관, 전공이수에 대한 학교에서의 효용성 및 지도의 어려움, 자격표시로 지도하는 과목과 다른 과목 지도 이유, 특수학교 교사임용의 개선점	1~8	8
미술교과 운영실태	미술전공자의 필요성, 한 주당 평균 미술수업 시수 및 이에 대한 의견, 본인의 담당 수업시수와 미술수업장소, 미술담당 시 가장 어려운 점과 효율적인 미술교육의 해결 점	1~7	7
학습교재와 기자재 활용 및 환경실태	미술 주교재, 미술교과서의 만족도와 교구 및 기자재, 학습자료의 활용도, 미술교육 개선을 위한 의견	1~5	5
합계			30

4.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에 있는 국·공립 및 사립특수학교 25개교에서 특수교사, 미술 수업을 하거나 중등수업을 맡고 있는 특수학교 교사 350명을 대상으로 2015년 11월 15일~ 2015년 12월 15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우편을 통해 설문지 350부를 발송하였고, 이후 몇 차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회신을 독려하여 회수하거나 여의치 않을 때는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260부(74%)이다.

5. 자료 처리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에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특수학교 미술과 교과교육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범주형 자료에서 비모수 기법인 교차분석(chisquare test) χ^2 을 실시하여 특수학교 미술과 교과교육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특수학교 미술교과 교육에 대한 교사의 변인별 인식

특수교사들의 미술교과 교육에 대한 인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1)특수학교 미술교육의 지도목표, 2)미술교과 담당의 어려움, 3)특수학교 미술교육 연수의 필요성, 4)희망하는 미술교육 연수내용, 5)학교의 미술교육 지원과 관심의 정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수학교 미술교육의 지도목표

특수학교 미술교육의 지도목표로서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창의적 표현 능력 향상의 경우가 36.9%로 보기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의 ‘미술활동을 통해 인지 및 언어능력 증진’과 ‘창의적 표현 능력의 향상’이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 남자교사들은 미술지도 목표로 ‘인지 및 언어능력 증진’과 ‘창의적 표현 능력의 향상’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용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특수학교 미술교육의 지도목표

		미술활동 을 통해 인지 및 언어 능력 증진	창의적 표현 능력의 향상	긍정적 자아개 념 형성과 사회적 소통능 력 향상	안정적 정서함양 과 문화감상 능력 배양	기타	합계	χ^2	<i>p</i>
성 별	남	18 (18.0)	41 (41.0)	18 (18.0)	22 (22.0)	1 (1.0)	100 (100.0)	13.598**	.009
	여	10 (6.3)	55 (34.4)	50 (31.3)	44 (27.5)	1 (.6)	160 (100.0)		

<표IV-1>의 계속

		미술활동을 통해 인지 및 언어능력 증진	창의적 표현 능력의 향상	긍정적 자아개 념 형성과 사회적 소통능력 향상	안정적 정서함양 과 문화감상 능력 배양	기타	합계	χ^2	p
교 직 경 력	10년 미만	18 (12.1)	55 (36.9)	44 (29.5)	31 (20.8)	1 (.7)	149 (100.0)	5.005	.287
	10년 이상	10 (9.0)	41 (36.9)	24 (21.6)	35 (31.5)	1 (.9)	111 (100.0)		
미 술 전 공 여 부	비전공 (초등)	21 (9.3)	85 (37.8)	62 (27.6)	56 (24.9)	1 (.4)	225 (100.0)	12.014	.151
	비전공 (중등)	3 (18.8)	7 (43.8)	2 (12.5)	4 (25.0)	0 (.0)	16 (100.0)		
	전공	4 (21.1)	4 (21.1)	4 (21.1)	6 (31.6)	1 (5.3)	19 (100.0)		
설 립 구 분	국공립	9 (11.1)	28 (34.6)	24 (29.6)	20 (24.7)	0 (.0)	81 (100.0)	1.66	.798
	사립	19 (10.6)	68 (38.0)	44 (24.6)	46 (25.7)	2 (1.1)	179 (100.0)		
소 속	초등	6 (11.8)	15 (29.4)	13 (25.5)	17 (33.3)	0 (.0)	51 (100.0)	3.106	.540
	중등	22 (10.5)	81 (38.8)	55 (26.3)	49 (23.4)	2 (1.0)	209 (100.0)		
	합계	28 (10.8)	96 (36.9)	68 (26.2)	66 (25.4)	2 (.8)	260 (100.0)		

** $p < .01$

2) 미술교과 담당의 어려움

미술교과를 담당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의 경우에 미술교과 교재 및 자료부족이 46.5%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의 능력 부족이 14.6%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이상인 경우에 미술교과 교재 및 자료부족이 55.9%로 10년 미만의 39.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10년 미만은 '교사의 능력 부족' 등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교직경력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든 교사가 미술
 교과 담당의 어려움으로 미술교과 교재 및 자료부족을 꼽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표 IV-2>와 같다.

<표 IV-2> 미술교과 담당의 어려움

		교사의 능력 부족	수업시 수 부족	수업 공간 부족	교과 교재 및 자료부 족	기타	합계	χ^2	p
성별	남	16 (16.0)	7 (7.0)	10 (10.0)	45 (45.0)	22 (22.0)	100 (100.0)	1.927	.859
	여	22 (13.8)	12 (7.5)	15 (9.4)	76 (47.5)	35 (21.9)	160 (100.0)		
교직경력	10년 미만	25 (16.8)	8 (5.4)	14 (9.4)	59 (39.6)	43 (28.9)	149 (100.0)	15.537**	.008
	10년 이상	13 (11.7)	11 (9.9)	11 (9.9)	62 (55.9)	14 (12.6)	111 (100.0)		
미술전공 여부	비전공 (초등)	34 (15.1)	16 (7.1)	21 (9.3)	105 (46.7)	49 (21.8)	225 (100.0)	2.999	.981
	비전공 (중등)	3 (18.8)	1 (6.3)	1 (6.3)	7 (43.8)	4 (25.0)	16 (100.0)		
	전공	1 (5.3)	2 (10.5)	3 (15.8)	9 (47.4)	4 (21.1)	19 (100.0)		
설립구분	국공립	11 (13.6)	5 (6.2)	5 (6.2)	41 (50.6)	19 (23.5)	81 (100.0)	2.485	.779
	사립	27 (15.1)	14 (7.8)	20 (11.2)	80 (44.7)	38 (21.2)	179 (100.0)		
소속	초등	8 (15.7)	2 (3.9)	10 (19.6)	18 (35.3)	13 (25.5)	51 (100.0)	10.782	.056
	중등	30 (14.4)	17 (8.1)	15 (7.2)	103 (49.3)	44 (21.1)	209 (100.0)		
	합계	38 (14.6)	19 (7.3)	25 (9.6)	121 (46.5)	57 (21.9)	260 (100.0)		

* $p < .05$, ** $p < .01$

3) 특수학교 미술교육 연수의 필요성

특수교사를 위한 미술교육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면, 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의 경우에 전체 응답자 중 89%정도 응답하여 높게 나타났다. 교직경력별로는 교직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1.4%로 나타나 절반이상이 응답하였고, 10년 미만이 32.9%로 나타나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술전공여부별로는 미술전공인 경우에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7.9%로 높게 나타났으며, 미술 비전공 초등교사는 39.1%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이 또한 .05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조사를 통해 연구자는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많은 수가 미술교육 연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내용은 <표 IV-3>과 같다.

<표 IV-3> 특수학교 미술교육 연수의 필요성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그저 그렇다	대체로 불필요	전혀 불필요	합계	χ^2	p
성별	남	40 (40.0)	51 (51.0)	7 (7.0)	1 (1.0)	1 (1.0)	100 (100.0)	3.258	.516
	여	66 (41.3)	74 (46.3)	16 (10.0)	4 (2.5)	0 (.0)	160 (100.0)		
교직경력	10년 미만	49 (32.9)	85 (57.0)	12 (8.1)	2 (1.3)	1 (.7)	149 (100.0)	12.766*	.012
	10년 이상	57 (51.4)	40 (36.0)	11 (9.9)	3 (2.7)	0 (.0)	111 (100.0)		
미술전공 여부	비전공 (초등)	88 (39.1)	111 (49.3)	21 (9.3)	5 (2.2)	0 (.0)	225 (100.0)	17.633*	.024
	비전공 (중등)	7 (43.8)	7 (43.8)	2 (12.5)	0 (.0)	0 (.0)	16 (100.0)		
	전공	11 (57.9)	7 (36.8)	0 (.0)	0 (.0)	1 (5.3)	19 (100.0)		

<표 IV-3>의 계속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그저 그렇다	대체로 불필요	전혀 불필요	합계	χ^2	<i>p</i>
설립구분	국공립	31 (38.3)	43 (53.1)	6 (7.4)	1 (1.2)	0 (.0)	81 (100.0)	1.812	.770
	사립	75 (41.9)	82 (45.8)	17 (9.5)	4 (2.2)	1 (.6)	179 (100.0)		
소속	초등	22 (43.1)	22 (43.1)	7 (13.7)	0 (.0)	0 (.0)	51 (100.0)	3.581	.466
	중등	84 (40.2)	103 (49.3)	16 (7.7)	5 (2.4)	1 (.5)	209 (100.0)		
합계		106 (40.8)	125 (48.1)	23 (8.8)	5 (1.9)	1 (.4)	260 (100.0)		

* $p < .05$

4) 희망하는 미술교육 연수내용

특수학교 교사를 위한 미술관련 연수의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보면 장애정도에 맞는 미술 프로그램 안내가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성별, 교직경력, 미술전공 여부, 설립구분, 소속에 따른 미술관련 연수내용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 내용은 <표 IV-4>과 같다.

<표 IV-4> 희망하는 미술교육 연수내용

		특수학교 미술교육 방법	장애학생 의 조형 발달단계 의 이해	특수학교 미술과 교과서 활용방안	장애정도 에 맞는 미술 프로그램 안내	기타	합계	χ^2	<i>p</i>
성별	남	22 (22.0)	8 (8.0)	20 (20.0)	47 (47.0)	3 (3.0)	100 (100.0)	5.696	.223
	여	30 (18.8)	8 (5.0)	26 (16.3)	95 (59.4)	1 (.6)	160 (100.0)		

<표 IV-4>의 계속

		특수학교 미술교육 방법	장애학생 의 조형 발달단계 의 이해	특수학교 미술과 교과서 활용방안	장애정도 에 맞는 미술 프로그램 안내	기타	합계	χ^2	<i>p</i>
교직경력	10년 미만	31 (20.8)	8 (5.4)	31 (20.8)	76 (51.0)	3 (2.0)	149 (100.0)	3.718	.445
	10년 이상	21 (18.9)	8 (7.2)	15 (13.5)	66 (59.5)	1 (.9)	111 (100.0)		
미술전공 여부	비전공 (초등)	45 (20.0)	12 (5.3)	41 (18.2)	124 (55.1)	3 (1.3)	225 (100.0)	6.997	.537
	비전공 (중등)	2 (12.5)	2 (12.5)	4 (25.0)	8 (50.0)	0 (.0)	16 (100.0)		
	전공	5 (26.3)	2 (10.5)	1 (5.3)	10 (52.6)	1 (5.3)	19 (100.0)		
설립구분	국공립	19 (23.5)	6 (7.4)	16 (19.8)	40 (49.4)	0 (.0)	81 (100.0)	3.686	.450
	사립	33 (18.4)	10 (5.6)	30 (16.8)	102 (57.0)	4 (2.2)	179 (100.0)		
소속	초등	12 (23.5)	2 (3.9)	8 (15.7)	28 (54.9)	1 (2.0)	51 (100.0)	1.128	.890
	중등	40 (19.1)	14 (6.7)	38 (18.2)	114 (54.5)	3 (1.4)	209 (100.0)		
	합계	52 (20.0)	16 (6.2)	46 (17.7)	142 (54.6)	4 (1.5)	260 (100.0)		

5) 학교의 미술교육 지원과 관심의 정도

학교의 미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면에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심이 있다(매우 많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관심은 있으나 지원이 부족하다)의 경우에 60%정도로 나타났다. 관심이 없다(관심도 적고 형식적 지원만 한다+전혀 관심이 없고 지원상태도 아주 좋지않다)의 경우에는 5.4%가 응답하였다. 특히 설립구분에서 사립이 국공립보다 미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립학교 뿐만 아니라 국·공

립학교도 관심으로만 끝나지 말고 더욱 더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학교경영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표 IV-5>와 같다.

<표 IV-5> 학교의 미술교육 지원과 관심의 정도

		매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	관심은 있으나 지원이 부족함	그저 그렇다	관심도 적고 형식적 지원만함	전혀 관심이 없고 지원상태 도 아주 좋지않음	합계	χ^2	<i>p</i>
성별	남	29 (29.0)	35 (35.0)	30 (30.0)	6 (6.0)	0 (.0)	100 (100.0)	5.477	.242
	여	36 (22.5)	54 (33.8)	62 (38.8)	5 (3.1)	3 (1.9)	160 (100.0)		
교직경력	10년 미만	29 (19.5)	56 (37.6)	58 (38.9)	5 (3.4)	1 (.7)	149 (100.0)	8.00	.092
	10년 이상	36 (32.4)	33 (29.7)	34 (30.6)	6 (5.4)	2 (1.8)	111 (100.0)		
미술전공 여부	비전공 (초등)	56 (24.9)	77 (34.2)	79 (35.1)	10 (4.4)	3 (1.3)	225 (100.0)	1.579	.991
	비전공 (중등)	4 (25.0)	5 (31.3)	6 (37.5)	1 (6.3)	0 (.0)	16 (100.0)		
	전공	5 (26.3)	7 (36.8)	7 (36.8)	0 (.0)	0 (.0)	19 (100.0)		
설립구분	국공립	11 (13.6)	27 (33.3)	37 (45.7)	5 (6.2)	1 (1.2)	81 (100.0)	10.744*	.030
	사립	54 (30.2)	62 (34.6)	55 (30.7)	6 (3.4)	2 (1.1)	179 (100.0)		
소속	초등	13 (25.5)	22 (43.1)	14 (27.5)	2 (3.9)	0 (.0)	51 (100.0)	3.351	.501
	중등	52 (24.9)	67 (32.1)	78 (37.3)	9 (4.3)	3 (1.4)	209 (100.0)		

<표 IV-5>의 계속

	매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	관심은 있으나 지원이 부족함	그저 그렇다	관심도 적고 형식적 지원만함	전혀 관심이 없고 지원상태 도 아주 좋지않음	합계	χ^2	<i>p</i>
합계	65 (25.0)	89 (34.2)	92 (35.4)	11 (4.2)	3 (1.2)	260 (100.0)		

* $p < .05$

1) 특수학교 미술교사들의 전공이수 경위와 그 효용성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미술전공 교사들의 미술전공 이수경위와 효용성, 그리고 수업에서의 애로점 등에 대한 인식수준을 알아본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특수학교 미술전공 교사들의 인식

		빈도	%
1. 자격증 취득 기관	미술대학교 학부에서	8	(42.1)
	미술대학 졸업 후 특수교육대학원	7	(36.8)
	기타	4	(21.1)
	합계	19	(100.0)
2. 자격증 소지의 효용성(학부취득자)	많은 도움이 된다	2	(25.0)
	보통 도움이 된다	3	(37.5)
	미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하다	3	(37.5)
	합계	8	(100.0)

<표 IV-6>의 계속

		빈도	%
3. 수업지도의 어려움 (학부취득자)	미술 실기지도 능력이 부족하다	2	(25.0)
	미술 이론지도 능력이 부족하다	2	(25.0)
	장애학생의 미술특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2	(25.0)
	기타	2	(25.0)
	합계	8	(100.0)
4. 자격증 소지의 효용 성(특수교육대학원취득자)	많은 도움이 된다	5	(62.5)
	보통 도움이 된다	3	(37.5)
	미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하다	0	(.0)
	합계	8	(100.0)
5. 수업지도의 어려움 (특수교육대학원취득자)	미술 실기지도 능력이 부족하다	1	(12.5)
	미술 이론지도 능력이 부족하다	0	(.0)
	장애학생의 미술특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6	(75.0)
	기타	1	(12.5)
	합계	8	(100.0)
6. 현재의 자격증으로 지도하는 과목	미술과목	4	(21.1)
	다른 교과 과목 담당	12	(63.2)
	기타	3	(15.8)
	합계	19	(100.0)
7. 다른 과목을 지도하 는 이유	미술교과 지도하기가 싫어서	0	(.0)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미술전담제를 하지 않아서	17	(89.5)
	기타	2	(10.5)
	합계	19	(100.0)
8. 특수학교 교사 임용 제도의 개선점	중등 특수교사도 일반교사처럼 표시 과목대로 뽑아야한다	16	(84.2)
	현행대로 유지	0	(.0)
	기타	3	(15.8)
	합계	19	(100.0)

현재 자격이수는 어디에서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미술대학교 학부에서가 42.1%로 높게 나타났으며, 미술대학 졸업 후 특수교육대학원이 36.8%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에서 이수한 자격이 학교현장에서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보면, ‘미술에 대한 전

문적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하다'가 37.5%, '보통 도움이 된다' 37.5%, '많은 도움이 된다' 25%로 나타났다. 학부에서 이수한 교사 중 지도에 어려운 점은 '미술 실기지도 능력이 부족하다', '미술 이론지도 능력이 부족하다', '장애학생의 미술특성을 이해하기 어렵다'가 각각 25%로 나타났다. 미술대학 졸업 후 특수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한 자격이 학교현장에서 도움이 되는가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가 62.5%, 보통 도움이 된다가 37.5%로 나타났다. 또한 지도에 어려운 점을 묻는 문항에 장애학생의 미술특성을 이해하기 어렵다의 경우가 75%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표시(미술과 전공 또는 미술교육)로 어떤 과목을 지도하는가'를 살펴보면, 다른 교과 과목 담당이 63.2%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교과 과목을 지도하는 이유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미술전담제를 하지 않아서'가 89.5%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특수학교 교사 임용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등 특수교사도 일반교사처럼 표시 과목대로 뽑아야한다는 의견이 84.2%로 높게 나타나서 현장에서 미술 비전공자가 미술교과를 지도하는 일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 특수학교 미술교과 운영실태에 대한 교사의 변인별 인식

특수학교에서 미술담당 교사실태와 수업시수, 수업장소 등 미술과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미술수업 시 미술전공자의 필요성, 2)실제 미술교과 주당 수업 시수, 3)미술교과 수업 시수에 대한 인식, 4)교사 1명의 주당 수업시수(미술), 5)미술교과 외 타 교과 주당 지원 시수, 6)미술수업 장소, 7)미술교과 담당 시 가장 어려운 점, 8)미술교육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점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미술수업 시 미술전공자의 필요성

미술영역 수업 시 미술 전공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필요하다(꼭 필요하다+필요하다)의 경우에 72.3%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

별로는 남자의 경우가 83%, 교직경력별로는 10년 이상인 교사가 80% 이상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타나 .001 수준에서 다른 의견과 상대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설립구분별로는 국공립보다 사립의 경우에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 조사로 교직경력이 많은 선생님과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더 있는 사립학교일수록 미술전공자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표 IV-7>과 같다.

<표 IV-7> 미술수업 시 미술전공자의 필요성

		꼭 필요	필요	그저 그렇다	불필요	전혀 불필요	합계	χ^2	<i>p</i>
성별	남	33 (33.0)	50 (50.0)	14 (14.0)	3 (3.0)	0 (.0)	100 (100.0)	9.664*	.046
	여	39 (24.4)	66 (41.3)	45 (28.1)	9 (5.6)	1 (.6)	160 (100.0)		
교직경력	10년 미만	27 (18.1)	72 (48.3)	43 (28.9)	6 (4.0)	1 (.7)	149 (100.0)	19.477***	.001
	10년 이상	45 (40.5)	44 (39.6)	16 (14.4)	6 (5.4)	0 (.0)	111 (100.0)		
미술전공 여부	비전공 (초등)	57 (25.3)	102 (45.3)	54 (24.0)	11 (4.9)	1 (.4)	225 (100.0)	13.55	.094
	비전공 (중등)	4 (25.0)	10 (62.5)	1 (6.3)	1 (6.3)	0 (.0)	16 (100.0)		
	전공	11 (57.9)	4 (21.1)	4 (21.1)	0 (.0)	0 (.0)	19 (100.0)		
설립구분	국공립	8 (9.9)	38 (46.9)	27 (33.3)	7 (8.6)	1 (1.2)	81 (100.0)	25.838***	.000
	사립	64 (35.8)	78 (43.6)	32 (17.9)	5 (2.8)	0 (.0)	179 (100.0)		
소속	초등	18 (35.3)	25 (49.0)	8 (15.7)	0 (.0)	0 (.0)	51 (100.0)	6.144	.189

<표 IV-7>의 계속

		꼭 필요	필요	그저 그렇다	불필요	전혀 불필요	합계	χ^2	p
소속	중등	54 (25.8)	91 (43.5)	51 (24.4)	12 (5.7)	1 (.5)	209 (100.0)	6.144	.189
	합계	72 (27.7)	116 (44.6)	59 (22.7)	12 (4.6)	1 (.4)	260 (100.0)		

* $p < .05$, *** $p < .001$

2) 실제 미술교과 주당 수업 시수

실제 미술교과 주당 수업 시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2시간이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속별로는 중등의 경우에 2시간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초등은 2시간과 3시간 응답이 높게 나타나 중등과 초등이 상대적으로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내용은 <표 IV-8>과 같다.

<표 IV-8> 실제 미술교과 주당 수업 시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합계	χ^2	p
성별	남	13 (13.0)	66 (66.0)	16 (16.0)	3 (3.0)	2 (2.0)	100 (100.0)	4.634	.327
	여	27 (16.9)	114 (71.3)	14 (8.8)	2 (1.3)	3 (1.9)	160 (100.0)		
교직경력	10년 미만	25 (16.8)	103 (69.1)	17 (11.4)	2 (1.3)	2 (1.3)	149 (100.0)	1.671	.796
	10년 이상	15 (13.5)	77 (69.4)	13 (11.7)	3 (2.7)	3 (2.7)	111 (100.0)		
미술전공 여부	비전공 (초등)	35 (15.6)	152 (67.6)	30 (13.3)	4 (1.8)	4 (1.8)	225 (100.0)	8.546	.382

<표 IV-8>의 계속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합계	χ^2	p
미술전공 여부	비전공 (중등)	2 (12.5)	14 (87.5)	0 (.0)	0 (.0)	0 (.0)	16 (100.0)	8.546	.382
	전공	3 (15.8)	14 (73.7)	0 (.0)	1 (5.3)	1 (5.3)	19 (100.0)		
설립구분	국공립	12 (14.8)	63 (77.8)	4 (4.9)	1 (1.2)	1 (1.2)	81 (100.0)	6.288	.179
	사립	28 (15.6)	117 (65.4)	26 (14.5)	4 (2.2)	4 (2.2)	179 (100.0)		
소속	초등	6 (11.8)	31 (60.8)	12 (23.5)	2 (3.9)	0 (.0)	51 (100.0)	11.638*	.020
	중등	34 (16.3)	149 (71.3)	18 (8.6)	3 (1.4)	5 (2.4)	209 (100.0)		
	합계	40 (15.4)	180 (69.2)	30 (11.5)	5 (1.9)	5 (1.9)	260 (100.0)		

* $p < .05$

3) 미술교과 수업 시수에 대한 인식

미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주당 수업 시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면, ‘현 시간 배당이 적당하다’의 경우에 52.3%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배당이 부족하다’의 경우에 36.5%, ‘시간배당이 매우 부족하다’의 경우는 8.5%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미술교육의 주당 수업시수에 대한 인식은 ‘적당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내용은 <표 IV-9>와 같다.

<표 IV-9> 미술교과 수업 시수에 대한 인식

		매우 부족	부족	적당함	충분함	합계	χ^2	p
성별	남	9 (9.0)	41 (41.0)	46 (46.0)	4 (4.0)	100 (100.0)	3.209	.360
	여	13 (8.1)	54 (33.8)	90 (56.3)	3 (1.9)	160 (100.0)		
교직경력	10년 미만	9 (6.0)	59 (39.6)	76 (51.0)	5 (3.4)	149 (100.0)	3.995	.262
	10년 이상	13 (11.7)	36 (32.4)	60 (54.1)	2 (1.8)	111 (100.0)		
미술전공 여부	비전공 (초등)	17 (7.6)	83 (36.9)	118 (52.4)	7 (3.1)	225 (100.0)	3.552	.737
	비전공 (중등)	3 (18.8)	5 (31.3)	8 (50.0)	0 (.0)	16 (100.0)		
	전공	2 (10.5)	7 (36.8)	10 (52.6)	0 (.0)	19 (100.0)		
설립구분	국공립	6 (7.4)	31 (38.3)	41 (50.6)	3 (3.7)	81 (100.0)	0.763	.858
	사립	16 (8.9)	64 (35.8)	95 (53.1)	4 (2.2)	179 (100.0)		
소속	초등	5 (9.8)	18 (35.3)	28 (54.9)	0 (.0)	51 (100.0)	1.952	.582
	중등	17 (8.1)	77 (36.8)	108 (51.7)	7 (3.3)	209 (100.0)		
합계		22 (8.5)	95 (36.5)	136 (52.3)	7 (2.7)	260 (100.0)		

4) 교사 한 명의 주당 수업 시수(미술)

교사 한 명의 주당 수업 시수(미술)의 경우에 교직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4.9시간으로 10년 미만인 2.5시간보다 높게 나타나 .00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미술전공여부별로는 미술전공의 경우에 9.3시간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에 비해 미술 비전공 중등교사는 2.4시간으로 낮게 나타나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설립별로는 사립의 경우에 4.2시간으로 높게 나타나 국공립의 2.3시간과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내용은 <표 IV-10>과 같다.

<표 IV-10> 교사 한 명의 주당 수업시수(미술)

		평균	표준편차	F/t	p	scheffe
성별	남	2.87	3.56	-1.261	.210	
	여	3.91	4.56			
교직경력	10년 미만	2.50	2.86	-3.287***	.001	
	10년 이상	4.90	5.27			
미술전공 여부	비전공 (초등)	3.13	3.67	12.834***	.000	c>a>b
	비전공 (중등)	2.44	1.42			
	전공	9.36	7.13			
설립구분	국공립	2.31	1.36	-2.551*	.012	
	사립	4.29	5.11			
소속	초등	4.00	4.99	.506	.614	
	중등	3.51	4.15			
	합계	3.61	4.31			

* $p < .05$, *** $p < .001$

5) 미술교과 외 타 교과의 주당 지원 시수

미술교과 외 타 교과의 지원 시수를 살펴보면, 중등교사의 경우에 평균 15시간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교사 14.3시간, 미술전공 11.8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초등 보다 중등이, 사립학교보다 국·공립학교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중등교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교과를 지원하는 시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은 <표 IV-11>과 같다.

<표 IV-11> 미술교과 외 타 교과의 주당 지원 시수

		평균	표준편차	F/t	p	scheffe
성별	남	14.35	4.13	.596	.552	
	여	13.95	3.99			
교직경력	10년 미만	14.51	3.55	1.409	.161	
	10년 이상	13.59	4.54			
미술전공 여부	비전공(초등)	14.33	3.72	3.060*	.050	c>a>b
	비전공(중등)	15.00	2.56			
	전공	11.81	6.09			
설립구분	국공립	14.29	2.05	.436	.664	
	사립	13.99	4.84			
소속	초등	13.75	5.49	.505	.614	
	중등	14.18	3.65			
	합계	14.10	4.03			

* $p < .05$,

6) 미술수업 장소

학생들이 미술수업을 어디에서 받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설립구분별에서 국공립의 경우에 일반교실에서 받거나 미술실과 일반교실을 병행하여 받는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립은 국·공립에 비해 미술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편이어서 .0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속별로는 초등의 경우에 미술실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9%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등의 경우에는 일반교실이라는 응답이 58.4%로 높게 나타나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 조사로 초등 미술수업은 미술실에서, 중등 미술수업은 일반교실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내용은 <표 IV-12>와 같다.

<표 IV-12> 미술수업 장소

		미술실	일반교실	미술실과 일반교실 병행	합계	χ^2	p
성별	남	37 (37.0)	50 (50.0)	13 (13.0)	100 (100.0)	5.386	0.068
	여	38 (23.8)	94 (58.8)	28 (17.5)	160 (100.0)		
교직경력	10년 미만	37 (24.8)	87 (58.4)	25 (16.8)	149 (100.0)	2.744	0.254
	10년 이상	38 (34.2)	57 (51.4)	16 (14.4)	111 (100.0)		
미술전공 여부	비전공 (초등)	63 (28.0)	123 (54.7)	39 (17.3)	225 (100.0)	4.764	.312
	비전공 (중등)	7 (43.8)	9 (56.3)	0 (.0)	16 (100.0)		
	전공	5 (26.3)	12 (63.2)	2 (10.5)	19 (100.0)		
설립구분	국공립	8 (9.9)	51 (63.0)	22 (27.2)	81 (100.0)	25.578***	.000
	사립	67 (37.4)	93 (52.0)	19 (10.6)	179 (100.0)		
소속	초등	25 (49.0)	22 (43.1)	4 (7.8)	51 (100.0)	13.197***	.001
	중등	50 (23.9)	122 (58.4)	37 (17.7)	209 (100.0)		
	합계	75 (28.8)	144 (55.4)	41 (15.8)	260 (100.0)		

*** $p < .001$

6) 미술교과 담당 시 가장 어려운 점

미술교과 담당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육과정과 현 학생들의 수준차이에 대한 어려움이 30.0%, 미술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이 27.7%, 장애특성

에 따른 교재 및 연구 등의 미비가 22.7% 순으로 나타났다. 미술전공여부별로는 초등교사의 경우에 미술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술전공의 경우에는 타 교과 담당으로 인한 교재 연구 시간부족과 장애특성에 따른 교재 및 연구 등의 미비가 높게 나타나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속별로는 초등의 경우에 미술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중등은 교육과정과 현 학생들의 수준차이에 대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나 .05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 문항에서는 미술전공자들의 응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타 교과 담당으로 인한 교재 연구 시간부족과 장애특성에 따른 교재 및 연구 등의 미비를 미술수업의 어려움으로 표시했다. 이는 나머지 미술 비전공교사들의 응답(미술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과 사뭇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결국 현장에서 필요한 미술 전공교사들의 임용과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그 내용은 <표 IV-13>과 같다.

<표 IV-13> 미술교과 담당 시 가장 어려운 점

		미술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	교육과정 과 현 학생들의 수준차이 에 대한 어려움	타 교과 담당으로 인한 교재 연구 시간부족	장애특성 에 따른 교재 및 연구등의 미비	교육의 물리적 환경조건 미비	합계	χ^2	<i>p</i>
성별	남	35 (35.0)	28 (28.0)	10 (10.0)	23 (23.0)	4 (4.0)	100 (100.0)	6.135	0.189
	여	37 (23.1)	50 (31.3)	24 (15.0)	36 (22.5)	13 (8.1)	160 (100.0)		
교직경력	10년 미만	44 (29.5)	43 (28.9)	22 (14.8)	32 (21.5)	8 (5.4)	149 (100.0)	2.295	0.682
	10년 이상	28 (25.2)	35 (31.5)	12 (10.8)	27 (24.3)	9 (8.1)	111 (100.0)		
미술전공 여부	비전공 (초등)	68 (30.2)	68 (30.2)	26 (11.6)	52 (23.1)	11 (4.9)	225 (100.0)	23.621**	.003
	비전공 (중등)	4 (25.0)	5 (31.3)	2 (12.5)	1 (6.3)	4 (25.0)	16 (100.0)		

<표 IV-13>의 계속

		미술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	교육과정 과 현 학생들의 수준차이에 대한 어려움	타 교과 담당으로 인한 교재 연구 시간부족	장애특성에 따른 교재 및 연구등의 미비	교육의 물리적 환경조건 미비	합계	X^2	p
미술전공 여부	전공	0 (.0)	5 (26.3)	6 (31.6)	6 (31.6)	2 (10.5)	19 (100.0)	23.621**	.003
설립구분	국공립	19 (23.5)	27 (33.3)	15 (18.5)	16 (19.8)	4 (4.9)	81 (100.0)	4.771	0.312
	사립	53 (29.6)	51 (28.5)	19 (10.6)	43 (24.0)	13 (7.3)	179 (100.0)		
소속	초등	20 (39.2)	11 (21.6)	2 (3.9)	13 (25.5)	5 (9.8)	51 (100.0)	9.866*	.043
	중등	52 (24.9)	67 (32.1)	32 (15.3)	46 (22.0)	12 (5.7)	209 (100.0)		
	합계	72 (27.7)	78 (30.0)	34 (13.1)	59 (22.7)	17 (6.5)	260 (100.0)		

* $p < .05$, ** $p < .01$

7) 미술교육을 위해 해결해야 할 점

특수학교에서 효율적인 미술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장애 특성에 맞는 미술 교과지도 방법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미술전담 교사 확보가 24.2%, 교사의 미술 지도력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의 확대가 16.9% 순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이상의 경우에 미술전담 교사 확보와 장애 특성에 맞는 미술 교과지도 방법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직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들이 선택한 의견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뢰도를 느끼게 한다. 그 밖의 사항들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내용은 <표 IV-14>와 같다.

<표 IV-14> 미술교육을 위해 해결해야 할 점

		미술전담 교사 확보	장애 특성에 맞는 미술 교과지도 방법	미술교과 관련연구 의 활성화	미술 지도력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	미술과 수업시 수 확대	학습지도 방법 개선에 대한 노력	합계	χ^2	p
성별	남	30 (30.0)	38 (38.0)	10 (10.0)	13 (13.0)	2 (2.0)	7 (7.0)	100 (100.0)	8.616	.125
	여	33 (20.6)	79 (49.4)	9 (5.6)	31 (19.4)	2 (1.3)	6 (3.8)	160 (100.0)		
교직경력	10년 미만	30 (20.1)	65 (43.6)	16 (10.7)	27 (18.1)	2 (1.3)	9 (6.0)	149 (100.0)	9.323	0.097
	10년 이상	33 (29.7)	52 (46.8)	3 (2.7)	17 (15.3)	2 (1.8)	4 (3.6)	111 (100.0)		
미술전공 여부	비전공 (초등)	55 (24.4)	100 (44.4)	17 (7.6)	39 (17.3)	4 (1.8)	10 (4.4)	225 (100.0)	4.899	.898
	비전공 (중등)	3 (18.8)	8 (50.0)	0 (.0)	3 (18.8)	0 (.0)	2 (12.5)	16 (100.0)		
	전공	5 (26.3)	9 (47.4)	2 (10.5)	2 (10.5)	0 (.0)	1 (5.3)	19 (100.0)		
설립구분	국공립	15 (18.5)	38 (46.9)	9 (11.1)	13 (16.0)	0 (.0)	6 (7.4)	81 (100.0)	7.236	.204
	사립	48 (26.8)	79 (44.1)	10 (5.6)	31 (17.3)	4 (2.2)	7 (3.9)	179 (100.0)		
소속	초등	17 (33.3)	21 (41.2)	4 (7.8)	7 (13.7)	1 (2.0)	1 (2.0)	51 (100.0)	4.029	.545
	중등	46 (22.0)	96 (45.9)	15 (7.2)	37 (17.7)	3 (1.4)	12 (5.7)	209 (100.0)		
	합계	63 (24.2)	117 (45.0)	19 (7.3)	44 (16.9)	4 (1.5)	13 (5.0)	260 (100.0)		

3. 특수학교 미술교과 학습교재와 기자재 활용 및 환경실태

특수학교에서 미술수업시간에 주로 사용되는 학습교재와 도구 및 기자재의 구비 현황, 그리고 활용정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1)미술수업 시 주 교재, 2)특수학교 미술교과서에 대한 만족도, 3)미술교재 및 교구의 구비현황, 4)학습기자재 및 학습자료의 활용도 등을 조사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술수업 시 주 교재

미술수업 시 주 교재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학생수준을 고려한 통합교재가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과서를 참고한 자체제작교재 28.5%, 특수학교 미술교과서 26.5%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별로는 초등의 경우에 특수학교 미술교과서와 학생수준을 고려한 통합교재가 비슷한 수치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등은 학생수준을 고려한 통합교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특수교육 미술수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미술교재로 교사들은 통합교재를 사용하였고 부족한 내용들은 자체 제작한 미술교재를 사용했다. 그 중에 초등 교사들은 학생수준을 고려한 통합교재를 주로 사용하면서 부족한 내용은 특수학교 미술교과서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내용은 <표 IV-15>와 같다.

<표 IV-15> 미술수업 시 주 교재

		미술전문 서적	일반학교 미술교과 서	교과서를 참고한 자체제작 교재	학생수준 을 고려한 통합교재	특수학교 미술교과 서	합계	χ^2	p
성별	남	6 (6.0)	6 (6.0)	33 (33.0)	32 (32.0)	23 (23.0)	100 (100.0)	15.224**	.004
	여	2 (1.3)	1 (.6)	41 (25.6)	70 (43.8)	46 (28.8)	160 (100.0)		
교직경력	10년 미만	6 (4.0)	2 (1.3)	49 (32.9)	58 (38.9)	34 (22.8)	149 (100.0)	7.614	.107

<표 IV-15>의 계속

		미술전문 서적	일반학교 미술교과 서	교과서를 참고한 자체제작 교재	학생수준 을 고려한 통합교재	특수학교 미술교과 서	합계	χ^2	p
교직경력	10년 이상	2 (1.8)	5 (4.5)	25 (22.5)	44 (39.6)	35 (31.5)	111 (100.0)	7.614	.107
미술전공 여부	비전공 (초등)	7 (3.1)	6 (2.7)	65 (28.9)	87 (38.7)	60 (26.7)	225 (100.0)	3.233	.919
	비전공 (중등)	0 (.0)	1 (6.3)	4 (25.0)	8 (50.0)	3 (18.8)	16 (100.0)		
	전공	1 (5.3)	0 (.0)	5 (26.3)	7 (36.8)	6 (31.6)	19 (100.0)		
설립구분	국공립	1 (1.2)	1 (1.2)	26 (32.1)	28 (34.6)	25 (30.9)	81 (100.0)	4.255	.373
	사립	7 (3.9)	6 (3.4)	48 (26.8)	74 (41.3)	44 (24.6)	179 (100.0)		
소속	초등	5 (9.8)	2 (3.9)	12 (23.5)	17 (33.3)	15 (29.4)	51 (100.0)	10.989*	.027
	중등	3 (1.4)	5 (2.4)	62 (29.7)	85 (40.7)	54 (25.8)	209 (100.0)		
합계		8 (3.1)	7 (2.7)	74 (28.5)	102 (39.2)	69 (26.5)	260 (100.0)		

* $p < .05$, ** $p < .01$

2) 특수학교 미술교과서에 대한 만족도

현재 사용 중인 미술교과서의 내용이나 구성이 미술수업을 위해 만족스럽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만족한다(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의 경우가 17% 정도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은 18% 정도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65.4%로 나타났다. 소속별로는 초등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중등보다 높게 나타나 .05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사용 중인 미술교과서의 내용이나 구성에 대해 초등학교가 더 불만족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국·공립에 비해 사립학교가 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표 IV-16>과 같다.

<표 IV-16> 특수학교 미술교과서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χ^2	<i>p</i>
성별	남	8 (8.0)	8 (8.0)	73 (73.0)	9 (9.0)	2 (2.0)	100 (100.0)	7.61	0.107
	여	8 (5.0)	22 (13.8)	97 (60.6)	25 (15.6)	8 (5.0)	160 (100.0)		
교직경력	10년 미만	8 (5.4)	17 (11.4)	98 (65.8)	18 (12.1)	8 (5.4)	149 (100.0)	2.732	0.604
	10년 이상	8 (7.2)	13 (11.7)	72 (64.9)	16 (14.4)	2 (1.8)	111 (100.0)		
미술전공 여부	비전공 (초등)	12 (5.3)	27 (12.0)	150 (66.7)	27 (12.0)	9 (4.0)	225 (100.0)	6.611	.579
	비전공 (중등)	1 (6.3)	1 (6.3)	10 (62.5)	3 (18.8)	1 (6.3)	16 (100.0)		
	전공	3 (15.8)	2 (10.5)	10 (52.6)	4 (21.1)	0 (.0)	19 (100.0)		
설립구분	국공립	2 (2.5)	9 (11.1)	53 (65.4)	15 (18.5)	2 (2.5)	81 (100.0)	5.859	.210
	사립	14 (7.8)	21 (11.7)	117 (65.4)	19 (10.6)	8 (4.5)	179 (100.0)		
소속	초등	8 (15.7)	6 (11.8)	30 (58.8)	5 (9.8)	2 (3.9)	51 (100.0)	10.309*	.036
	중등	8 (3.8)	24 (11.5)	140 (67.0)	29 (13.9)	8 (3.8)	209 (100.0)		
합계		16 (6.2)	30 (11.5)	170 (65.4)	34 (13.1)	10 (3.8)	260 (100.0)		

* $p < .05$

3) 미술교재 및 교구의 구비현황

미술교과 수업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의 구비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좋은 편이다(아주 좋다+ 대체로 좋은 편이다)의 경우에 41%정도로 나타났으며, 구비되어 있지 않다(좋지 않은 편이다+ 거의 구비되어 있지 않다)의 경우에 13%정도로 나타났다. 소속별로는 중등의 경우에 좋은 편이다가 초등보다 높게 나타나 .01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미술교과 수업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의 구비현황에 대하여 초등보다는 중등이 상대적으로 구비현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내용은 <표 IV-17>과 같다.

<표 IV-17> 미술교재 및 교구의 구비현황

		아주 좋음	대체로 좋은 편	그저 그렇다	좋지 않은 편	거의 구비되 어 있지 않음	합계	χ^2	p
성별	남	11 (11.0)	33 (33.0)	48 (48.0)	7 (7.0)	1 (1.0)	100 (100.0)	6.551	.162
	여	8 (5.0)	54 (33.8)	73 (45.6)	18 (11.3)	7 (4.4)	160 (100.0)		
교직경력	10년 미만	12 (8.1)	51 (34.2)	68 (45.6)	13 (8.7)	5 (3.4)	149 (100.0)	0.764	.943
	10년 이상	7 (6.3)	36 (32.4)	53 (47.7)	12 (10.8)	3 (2.7)	111 (100.0)		
미술전공 여부	비전공 (초등)	16 (7.1)	75 (33.3)	105 (46.7)	21 (9.3)	8 (3.6)	225 (100.0)	2.732	.950
	비전공 (중등)	1 (6.3)	6 (37.5)	8 (50.0)	1 (6.3)	0 (.0)	16 (100.0)		
	전공	2 (10.5)	6 (31.6)	8 (42.1)	3 (15.8)	0 (.0)	19 (100.0)		
설립구분	국공립	6 (7.4)	32 (39.5)	34 (42.0)	6 (7.4)	3 (3.7)	81 (100.0)	2.559	0.634
	사립	13 (7.3)	55 (30.7)	87 (48.6)	19 (10.6)	5 (2.8)	179 (100.0)		

<표 IV-17>의 계속

		아주 좋음	대체로 좋은 편	그저 그렇다	중지 않은 편	거의 구비되 어 있지 않음	합계	χ^2	p
소속	초등	7 (13.7)	10 (19.6)	22 (43.1)	10 (19.6)	2 (3.9)	51 (100.0)	14.108**	.007
	중등	12 (5.7)	77 (36.8)	99 (47.4)	15 (7.2)	6 (2.9)	209 (100.0)		
합계		19 (7.3)	87 (33.5)	121 (46.5)	25 (9.6)	8 (3.1)	260 (100.0)		

** $p < .01$

4) 학습기자재 및 학습자료의 활용도

학습 기자재와 학습자료의 활용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의 경우에 25.4%,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가 8.5%, 보통이다가 66.2%로 나타나, 결국 학교에 구비되어 있는 기자재와 학습자료의 활용도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표 IV-18>과 같다.

<표 IV-18> 학습기자재 및 학습자료의 활용도

		활용도가 낮은 편임	보통	활용도가 높은 편임	기타	합계	χ^2	p
성별	남	10 (10.0)	69 (69.0)	21 (21.0)	0 (.0)	100 (100.0)	1.884	0.39
	여	12 (7.5)	103 (64.4)	45 (28.1)	0 (.0)	160 (100.0)		
교직경력	10년 미만	11 (7.4)	101 (67.8)	37 (24.8)	0 (.0)	149 (100.0)	0.663	0.718

<표 IV-18>의 계속

		활용도가 낮은 편입	보통	활용도가 높은 편입	기타	합계	χ^2	p
교직경력	10년 이상	11 (9.9)	71 (64.0)	29 (26.1)	0 (.0)	111 (100.0)	0.663	0.718
미술전공 여부	비전공 (초등)	18 (8.0)	148 (65.8)	59 (26.2)	0 (.0)	225 (100.0)	1.796	.773
	비전공 (중등)	2 (12.5)	12 (75.0)	2 (12.5)	0 (.0)	16 (100.0)		
	전공	2 (10.5)	12 (63.2)	5 (26.3)	0 (.0)	19 (100.0)		
설립구분	국공립	4 (4.9)	53 (65.4)	24 (29.6)	0 (.0)	81 (100.0)	2.57	0.277
	사립	18 (10.1)	119 (66.5)	42 (23.5)	0 (.0)	179 (100.0)		
소속	초등	8 (15.7)	34 (66.7)	9 (17.6)	0 (.0)	51 (100.0)	5.413	0.067
	중등	14 (6.7)	138 (66.0)	57 (27.3)	0 (.0)	209 (100.0)		
합계		22 (8.5)	172 (66.2)	66 (25.4)	0 (.0)	260 (100.0)		

V. 논 의

본 연구는 특수학교에서 미술교과교육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연구문제를 토대로 그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특수학교 미술교과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미술은 인간 본연의 표현욕구와 인간으로서의 정서적 소통을 이끌어 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자신만의 표현 언어로 풀어낼 수 있다. 그 표현 행위 자체가 심적 안정과 위로를 주며 치유의 과정이 되기도 한다(최외선 등, 2006). 미술은 이렇게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많은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미술교육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필요하며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중요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공급되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교사들의 미술과목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이다. 미술교육은 전문성을 갖춘 미술전공 교사에 의해 선택, 결정되어진 교재와 기자재를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장애학생들에게 맞는 효과적인 미술프로그램이나 학습방법 등을 적절히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집중력과 눈과 손의 협응력, 소근육 및 대근육운동 등과 자칫 날카로울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도 다소 부드럽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결과 특수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미술전공교사는 전체교사 중에 10%에도 못미치는 7.3%에 불과했다. 그 전공교사 중에서 미술과목을 지도하지 않고 다른 과목을 지도하는 교사가 반 이상(63.2%)이었다. 미술전공자 중에서도 미술과목을 지도하는 교사는 고작 21%였다. 즉, 미술 전공교사가 10명이라면 그 중 자신의 전공대로 미술수업에 투입되는 교사는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8명은 다른 교과를 지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미술수업 현실이 이렇다 보니 특수학교에서 미술전공자가 담당해야 하는 미술수업을,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는 미술 비전공교사가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유난희(2014)의 특수학교 미술교과 운영 실태 조사에서도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미술담당교사 150명 중 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용석(2006)의 조사에서는 특수학교 미술담당 교사 중 75% 정도가 미술 비전공교사로 나타났으며 김유리(2006)의 연구에서도 미술담당교사 264명 중에서 미술전공 교사는 46명이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술전공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조사대상 학교들 중에 25%였고, 1명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28.8%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서도 교사의 전문성을 요하는 미술과목을, 미술 비전공교사가 담당하는 데서 오는 애로사항들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설문조사에서 미술교과를 담당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교사의 능력부족, 미술교과 교재 및 자료부족이 60%가 넘게 나타났다. 학습 자료의 부족은 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는데 그때 그때의 수업주제에 맞게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 선택하여 학생에게 적절한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미술담당교사의 의무이며 미술교사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술수업에서의 어려움은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에게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또한 특수교사를 위한 미술교육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90%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미술전공 교사들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0%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미술교육 지원과 관심의 정도를 묻는 문항에, 관심은 있으나 지원이 부족하다와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70%정도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특수학교에서의 미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미술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정도를 알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학교의 미술수업에 대한 관심과 미술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특수학교 교사를 위한 미술관련 연수내용을 묻는 문항결과를 보면 장애정도에 맞는 미술프로그램 안내가 54.6%로 높게 나타났고, 특수학교 미술교육 방법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미술과목에 전문성을 갖춘 미술전공 교사의 경우 특수학교 미술교육방법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질 높은 미술수업을 위해 필요한 연수내용으로, 특수학교 미술교육방법을 많이 지목했다는 것은 특수학교 미술교육방법들이 일반학교의 미술교육 방법들처럼 구체화되고 세분화되면서도 폭넓고 다양한 소재와 주제들을 교사들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특수학교 교사들은 미술전공교사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72.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제 수업현장에서 미술 비전공교사로서 전문성을 요하는 미술수업을 이끌어 가는데 따른 여러가지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특수학교의 미술교과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결과는 미술교과를 비전공자가 맡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미술의 긍정적 특성이 학교현장에서 장애학생들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1) 특수학교 미술교사의 전공이수와 그 효용성

본 연구결과에서 보면 미술을 전공했거나 미술교육을 전공한 교사(이하 미술전공교사)는 연구에 참여한 전체교사 중에 7.3%였으며 미술전공 교사 중에서 학부에서 전공한 사람은 42%, 특수대학원에서 전공한 사람은 37%로 조사되었다. 특수학교의 미술전공 교사들을 대상으로 미술전공이수가 특수학교 미술수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100%가까이(특수대학원)가 미술수업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학부에서 전공한 교사들도 70%가깝게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특수학교에서 미술수업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미술 비전공 교사들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미술교육을 위해서 미술을 담당하고 있는 미술 비전공교사들의 미술 전문성 부재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다.

표시과목으로 어떤 과목을 지도하는가의 질문에 자신의 전공인 미술과목의 지도는 21%, 다른 과목의 지도는 65%정도로써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과목을 담당하는 이유로는 90%정도가 교육과정 운영 상 미술전담제를 실시하지 않아서 전공과목과 상관없이 다른 과목을 지도한다고 응답했다. 때문에 현재 특수학교 교사 임용제도의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서 중등 특수교사도 일반교사처럼 표시과목 대로 뽑아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 85%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특수학교에서 미술전공 교사들의 미술전문성에 대한 효용성은 매우 높으나 그 전문성을 갖춘 전공교사들의 활용도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장애학생들에게 미치는 미술의 교육적 효과나 인적자원의 활용성 차원에서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학교는 미술전담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미술전공자를 임용하여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미술전공교사가 미술과목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로 통해 특수학교 미술교육에서 미술 전공교사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 미술의 긍정적 특성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면 미술교육의 효과가 학생 개개인에게 제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수학교는 의무적인 미술전담제를 실시해야 하며 미술 전담교사의 시급한 채용과 미술교사 전문성향상을 위한 연수 등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제대로 된 미술교육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특수학교 미술교과 운영실태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미술적 경험이나 환경은 그들에게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모든 경험이나 환경을 선택하고 직접 그들의 앞에 현실로 만들어 제공하는 것은 바로 미술 담당 교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각 학생들에게 맞는 질 높은 수업의 정도는 담당교사의 자질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은 미술수업에서 일반학생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이나 모두 미술적 경험에 노출되며 그것의 영향을 받고, 그것을 느끼고 습득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같다고 할 수 있다. 단지 특수학생들은 장애가 있어서 다소 불편하거나 시간이 더 소요되거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뿐이다. 일반 학생들이 그렇듯 장애학생들도 각자 성향과 자신에게 맞는 미술 분야 또는 좀 더 끌리고 가슴 뛰는 분야 내지는 그것을 접하면 행복해지거나 조금 더 자신 있는 미술적 영역이 반드시 있다. 이것은 미술을 전공하고 학생들을 지도해 본 교사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교사라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세심히 살피

고 관찰하여 그들의 요구와 필요에 적극 호응해 주고 반응해 주며 학생들이 느끼는 기쁨이나 호기심, 성취감 그리고 독특한 감정 등에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비로소 장애학생들은 다른 교과와는 다른 미술교과만의 긍정적 특성과 장점들에 충분히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 현재 특수학교 현장의 미술교과는 미술전공이 아닌 미술비전공교사가 맡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체능은 특히 전공교사가 담당해야 함에도 무작위로 미술교과를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문조사에서 미술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미술교육 연수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0%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연수내용으로는 장애정도에 맞는 미술 프로그램안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수학교 미술교육방법과 장애학생의 조형발달단계의 이해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이와 관련하여 미술전공교사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72,3%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미술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현재 특수학교의 미술교사 운영실태를 보면 미술전공교사가 미술과목과는 상관 없는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경우가 63.2%로 나타난 가운데 미술전공교사가 미술과목을 담당하는 시간은 주당 9시간 정도인 반면 다른 과목을 맡는 시간은 주당 12시간 정도로 나왔다. 다른 과목을 지도하는 이유로는 교육과정 운영상 미술전담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9.5%로 높았다. 또한 전공교사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응답으로는 교사임용제도의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 표시과목대로 교사를 뽑아야 한다는 응답이 84.2%로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미술교육이 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요소로 미술전담교사의 확보가 높게 나타났으며, 미술교과 담당 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도 미술교육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술수업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미술전공 교사들에게 미술수업 담당 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서 타 교과 담당으로 인한 교재연구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표시과목 별 교사임용을 필히 해야 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알아 본 연구결과는 그 중심에 미술전공교사의 부재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이것은 미술 전공교사를 필요한 만큼 확보해 정확한 프로그램이나 교수방법을 통해 진단하고 선택하여 최대한 학습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가 힘을 모아 노력을 기울인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3. 특수학교 미술교과 학습교재와 기자재활용 및 환경실태

미술수업에서 미술교재는 수업의 방향을 잡아주는 중심축 역할을 하며 수업의 내용을 풍부하며 다양하게 이끌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중요한 미술교재의 존재가 특수학교 미술수업에서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일반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는 영역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일반 미술 교과서보다 더 신경쓰고 연구해서 장애학생들의 요구와 장애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수업의 방향이 되는 적합한 교재나 학습 자료들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를 보면, 미술교육 담당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미술교과 교재 및 자료의 부족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으로 현재 특수학교 미술교재의 현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미술 주 교재를 묻는 질문에서 특수학교 미술교과서는 교사가 자체 제작한 교재보다 사용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주 교재로 사용하는 미술교과서의 내용이나 구성이 만족스럽냐는 질문에 그저 그렇거나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83.1%로 높게 나왔다. 이것은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미술교과서의 내용이나 질적인 부분이 좀 더 전문적이며 세분화되고 다양화 되어서 학생들 각각의 장애특성에 조금 더 부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의 교과서를 연구, 제작해야함을 말해준다.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에게 미술교과교육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적는 주관식 문항에서 교재와 다양한 수업방법 그리고 기자재 및 환경개선이 40%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재 및 교구의 구비현황과 그 활용도를 묻는 질문에서 미술전공 교사들의 응답을 보면 그저 그렇거나 좋지 않은 편이다가 57.9%(구비현황)와 73.7%(활용도)로 높게 나타났다. 미술수업에서 수업의 진행이 가능하려면 재료와 교구 및 필요한 기자재가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 특히 예체능 수업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몸소 만지고 체험하는 과정이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재료나 교구, 기자재

등이 없이는 원활한 학습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특수학교의 교재 및 재료와 교구 등의 구비현황과 그것의 활용도는 매우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구비되어 있는 재료나 교구 조차도 그 활용용도나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이 미술수업을 어디에서 받는지와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데, 조사에서 미술수업을 일반교실에서 받는 경우가 60%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미술수업이 미술실이 아닌 일반교실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미술수업에서 사용해야하는 재료나 교구, 기자재 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그 결과 교구 및 기자재의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술실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책걸상에 부딪힘 없이 자유롭고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에 맞게 교구나 교재 및 재료를 충분히 사용하여 그들 내면의 심상을 표출해내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돕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많은 특수학교들은 미술실 사용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학습교재나 재료, 기자재 등의 학습 환경은 미술 전담교사와 함께 장애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존재라는 것을 특수학교 교사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미술담당교사는 학교에 이미 구비되어 있는 미술교구나 미술재료 그리고 미술실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수업이 넓은 미술실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연구자는 본 논문의 연구결과와 논의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특수학교 미술교육에서는 미술의 긍정적 특성이 학생 개개인에게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특수학교는 미술교과를 미술교육을 전공한 교사에게 맡겨야 하며 미술전공교사가 더 이상 타 교과를 지도함으로써 인해 정작 미술수업에 필요한 학습자료나 교재연구를 못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미술교사는 미술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등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제대로 된 미술교육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수학교의 미술교재나 기자재, 넓은 미술실 등의 미술교육 환경은 미술의 긍정적 특성을 학생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기에 아직 부족함이 많다. 특수학교와 교사는 학습교재나 재료, 기자재 등의 학습 환경이 장애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요소임을 항상 기억하여야 하며, 각 장애학생의 특성에 맞는 수업 자료나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특수학생들이 질 좋은 미술교재를 통해 다양한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셋째, 미술담당 교사의 자질은 미술의 긍정적 특성을 전달하기에 미비한 점이 많은데, 이는 미술수업이 미술 비전공교사들에 의해,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는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청은 특수학교도 일반학교처럼 표시과목(특히 예체능과목) 별로 교사를 임용해야 한다. 이는 미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며 교육수요자인 장애학생들의 질 높은 미술수업을 위해서도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특수학교 미술과 교과교육 운영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수학교 미술교과교육에 대한 교사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특수학교 교사들은 미술교육 담당의 어려움으로 미술교과 교재 및 자료의 부족을 첫 번째로 뽑았다. 미술교육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89%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연수내용으로는 ‘장애정도에 맞는 미술 프로그램 안내’가 55%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특수학교에 종사하는 많은 교사들이 미술교육연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의 미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정도의 조사에서는 60%가 ‘관심이 있다’로 나왔으며 사립이 국공립보다 관심과 지원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따라서 사립학교 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도 미술교육에 대해 관심으로만 끝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학교경영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특수학교 미술전공 교사들의 전공이수의 효용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미술교육전공 이수가 미술수업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수업 시 어려움으로 ‘장애학생의 미술특성을 이해하기 어렵다’와 ‘타 교과담당으로 인해 미술교재연구의 시간이 많이 부족하며, 장애특성에 따른 교재 및 연구 등이 미비하다’로 나타났다. 또한 미술교육전공자로서 현재 다른 과목을 지도하고 있는 비율도 65%정도로 높았으며 다른 과목 지도이유는 ‘학교가 미술전담제를 운영하지 않아서’로 나타났다. 특수학교 교사임용제도의 개선점으로는 중등특수교사도 일반교사처럼 표시과목별로 뽑아야한다는 의견이 84%로 높았다.

셋째, 특수학교 미술교과 운영실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미술전공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7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중에서 특히 교직경력 10년 이상 교사들에서 80% 이상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그 절실함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 미술전공 교사들에게 실시된 미술과목 외 타 교과의 지원 시수에 대한 조

사에서 미술교과는 주당 9.3시간을 지도하는 반면 타 교과는 11.8시간을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이 사립보다 타교과를 맡는 시수가 많았으며 이를 통해 사립이 상대적으로 미술교육에 더 신경쓰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사립학교와 초등은 미술수업을 주로 미술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등은 미술실이 아닌 일반교실에서 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응답이 높았다. 특수교사들 전체 조사에서 미술교과 담당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첫째, ‘현재 교육과정이 학생수준에 맞지 않는 것’ 둘째, ‘미술교육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술수업이 어렵다’ 순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미술교육을 위해 해결해야 할 점으로 교사들의 45%가 ‘장애특성에 맞는 미술교과 지도방법’을 뽑았고 그 뒤로 ‘미술전담 교사 확보’, ‘미술연수 기회 확대’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수학교 미술교과 학습교재와 기자재 활용 및 환경실태를 살펴본 결과, 미술수업 시 사용되는 주 교재로 학생수준을 고려한 통합교재가 가장 많았고 이 통합교재에서 부족한 내용들은 자체 제작한 미술교재를 같이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수학교 미술교과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사립학교가 특수학교 미술교과서에 대한 만족감이 가장 낮았다. 미술교재 및 기자재 등의 구비현황과 활용도를 보면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구비현황에서는 초등보다 중등이 더 양호했다. 그러나 그 활용도 면에서는 (보통이다+좋지 않다)는 의견이 75%로 나와 미술교재 및 기자재 활용도가 전체적으로 그리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본 논문의 결론을 마치면서 느낀 것은 미술교육 전반에 대해 국공립보다 사립학교가 더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공립학교도 미술교육에 있어서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미술교육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쏟을 수 있길 바란다.

2. 제 언

이상의 연구결과와 결론을 통해 특수학교 미술과 교과교육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미술표시과목 교사들의 인원을 파악하려 하였다 그러나 특수학교들은 전공자 유무의 공개조차 꺼려했으며 특히 사립은 더 심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전공자 유무와 인원 파악이 어려웠으며 교사들의 설문 내용으로만 전공자 파악이 가능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각 학교에 근무하는 전공자들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그 학교의 학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을 통해 교사들의 실태파악을 시도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교사 개인 중심의 질적인 조사도 필요하다. 설문지를 통한 조사는 문항수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고 정형화된 문항들만을 조사하게 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교사와 일대일 면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원하는 만큼 수집 할 수 있는 인터뷰 형식의 조사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대옥 등, 『특수교육학 개론』 (학지사, 2012).
 강혜경 등, 『장애아동을 위한 미술교육』 (학지사, 2015).
 김말숙, 『새롭게 보는 미술치료』 (교육과학사, 2007).
 김미경 등, 『아동미술교육』 (과워북, 2015).
 김미선 등, 『특수교육 미술교육론』 (교육과학사, 2011).
 김삼량,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2000).
 김성숙 등,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2007).
 김정 등, 『미술교육학원론』 (예경, 2002).
 김정, 『미술교육의 모든 것』 (예경, 1997).
 김재용, 『혼자가가는 미술관』 (미술문화, 2011).
 김춘일 · 윤정방, 『아동미술교육 이론과 실제』 (미진사, 2007).
 권상구, 『아동미술교육』 (미진사, 1998).
 노부자 등, 『몸과 마음을 살리는 미술치료』 (예경, 2005).
 류동훈, 『교사론』 (창지사, 2004).
 박라미, 『미술교육의 바람직한 실천을 위한 10가지 생각』 (양서원, 2005).
 박숙자 · 이나미 · 최윤희, 『특수교육학개론』 (청목출판사, 2012).
 서울교대 미술교육연구회, 『미술교육이론과 사상』 (교육과학사, 2011).
 손경숙 · 이현수, 『재미있고 신나는 장애아동미술교육』 (동문사, 2011).
 송현정, 『미술로 생각하는 아이들』 (새길 미디어, 2006).
 윤점룡, 『장애학생의 이해와 교육』 (학지사, 2005).
 이규선 등,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2003).

- 이근매 · 조용태, 『장애아동 미술치료』 (학지사, 2014).
- 이근매 등,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동아 문화사, 2007).
- 이성도 · 임정기 · 김황기,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2013).
- 양경희, 『새로운 개념에 기초한 아동미술교육 통합적 접근』 (학지사, 2008).
- 전병운 · 유재연, 『특수교육과 교과교육』 (교육과학사, 2011).
- 전병운, 『특수교육과 교과교육』 (교육과학사, 2003).
- 전성수 · 박수자 · 김정선, 『어린이와 어린이미술』 (예경, 2006).
- 정대영, 『특수교육학』 (창지사, 2011).
- 최세민 · 유장순 · 김주영, 『특수학급 경영론』 (박학사, 2005).
- 최외선 등,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 (학지사, 2006).
- 한국미술문화연구회, 『반갑다! 미술교과서』 (미진사, 2007).
- 한기정, 『아동미술과 특수아동미술』 (교육과학사, 1997).
- 김유리. “정신지체 특수학교 미술교과교육 운영실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2005.
- 권용석. “정신지체 특수학교의 미술교육 실태 조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금경보. “정신지체학교의 미술교육 실태 및 개선방향.”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류난희. “정신지체 특수학교 미술교과 운영실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 이미경. “특수학교 미술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이지윤. “정신지체 특수학교 미술교과 운영실태 조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교육대학원, 2006.
- 조민영. “중등특수 미술교육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한문주. “특수학교 미술교육 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 한기백. “미술교과의 바람직한 교육내용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8.
- 한인혜. “바람직한 미술교육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부 록>

설문지

「특수학교 미술과 교과교육 운영 실태 조사」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특수학교 미술과 교과교육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지도와 학교업무로 바쁘신 선생님께 어려운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서 평소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느끼신 바를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해주신 내용은 특수학교 미술교과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매우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11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 최완희
지도 교수 김정연

- ③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과 사회적 소통능력 향상
- ④ 안정적 정서함양과 문화감상능력 배양
- ⑤ 기타 ()

2. 미술교과를 담당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교사의 능력 부족
- ② 미술교과 수업시수 부족
- ③ 미술 수업공간 부족
- ④ 학생들의 심한 개인차
- ⑤ 미술교과 교재 및 자료부족
- ⑥ 기타()

3. 특수교사를 위한 미술교육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대체로 필요한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대체로 필요 없다
- ⑤ 전혀 필요 없다

4. 특수학교 교사를 위한 미술관련 연수의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특수학교 미술교육방법
- ② 장애학생의 조형 발달단계의 이해
- ③ 특수학교 미술과 교과서 활용방안
- ④ 장애정도에 맞는 미술 프로그램 안내
- ⑤ 기타 ()

5. 귀 학교는 미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면에서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많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② 관심은 있으나 지원이 부족하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관심도 적고 형식적 지원만 한다

- ① 현 시간배당이 매우 부족하다
- ② 현 시간배당이 부족하다
- ③ 현 시간배당이 적당하다
- ④ 현 시간배당이 충분하다
- ⑤ 미술수업시간이 불필요하다

4.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주당 수업 시수는 몇 시간입니까?

- ① 미술()시간
- ② 타교과 지원 ()시간

5. 귀교의 학생들은 미술수업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 ① 미술실
- ② 일반교실
- ③ 미술실과 일반교실을 번갈아 가며 받는다

6. 미술교과 담당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미술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능력부족)
- ② 교육과정과 현 학생들의 수준 차이에 대한 어려움(학생들의 이해능력부족)
- ③ 타 교과 담당으로 인한 교재 연구 시간부족
- ④ 장애특성에 따른 교재 및 연구 등의 미비
- ⑤ 교육의 물리적 환경조건 미비

7. 특수학교에서 효율적인 미술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미술전공 교사 확보
- ② 장애 특성에 맞는 미술 교과지도 방법
- ③ 미술교과 관련연구의 활성화
- ④ 교사의 미술 지도력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의 확대
- ⑤ 미술과 수업시수의 확대
- ⑥ 학습지도 방법 개선에 대한 노력

< 학습교재와 기자재 활용 및 환경실태 >

※ 바쁘신 가운데도 성의껏 답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